



2023 하반기 성인성서연구

8. 29(화) ~ 11. 16(목)

화요조찬 - 오전 6:30 (개강 : 8월 29일),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성경의 땅을 걷다

성경의 주요 지리와 도시, 역사적 장소 등을 탐험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화요일반 - 오전 10:00 (개강 : 8월 29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후기예언서 2	홍성민 목사	선교관 B1 제1음악실
예언자들	이재용 목사	본당 B2 제2예배실
예수님의 비유	주요한 목사	2교육관 B1 제1예배실
사도행전 강해 2	류현조 목사	본당기도처
로마서 산책 2	이재경 목사	선교관 B2 제2예배실
기쁨으로 읽는 빌립보서	이순기 목사	본당 B2 제2음악실
바울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	윤 환 목사	2교육관 B2 제2예배실
옥중서신 -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	조성실 목사	본당 B1 제1예배실
광야를 지나며	장재원 목사	선교관 2F 제1예배실

목요일반 - 오전 10:00 (개강 : 8월 31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김경래 목사	2교육관 B2 제2예배실
혼돈의 시대에 만나는 사사기	한정운 목사	선교관 B2 제2예배실
에스더	나영덕 목사	본당 B1 제1예배실
예수님과 함께	이우성 목사	2교육관 B1 제1예배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	권정혁 목사	본당 B2 제2예배실
요한복음 2	김영규 목사	선교관 2F 제1예배실
고린도전·후서	이성민 목사	선교관 B1 제1음악실
요한계시록 강해	정제현 목사	선교관 B2 210호
시네마 바이블	유지미 목사	본당 B2 제2음악실

저녁강의 - 목요일 오후 7:30 (개강 : 8월 31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내 목소리로 읽는 복음서	윤 환 목사	2교육관 3F 301호

아들람 기도회 (온라인 지구) - 금요일 오후 9:00 (개강 : 9월 1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기도학교	조성실 목사	온라인 (월 1회 온·오프 병행)

- 소속된 지구와 관계없이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CONTENTS

September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2
깊어지는 영성	눈을 들리라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소망에 놀라라는 초대 애슐리 헤일스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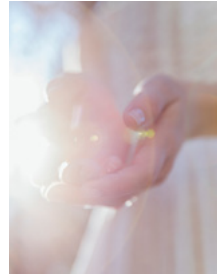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9월 본문	역대상·욥기	16
	1주(9/4) 2주(9/11) 3주(9/18) 4주(9/25)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원씨니	26
소망사랑방	은혜의 소낙비 소망부	74
전도서산책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순기	118
공간공감	대전제일장로교회 홍성찬	160
이달의 기도	정성된 마음을 주사	198

COMMUNICATION

문화읽기	<레 미제라블>을 통해 본 기독교적 사랑의 의미 황영미	200
소망마당	뜨거운 우리의 여름 대학부	204
성지스토리	땅이 낸 고백 2 김미원·이혜영	208
그림묵상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호연	212
예배자의 길	9월 우리의 고백 황주은·임한숙·박미아	214
뿌리를 찾아서	화마에서 건짐받은 아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히다 박경수·이근복	218
가정예배 오답노트	가정예배는 시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형섭	222
돌봄의 창	약간의 유익 육체의 연단 이길연	226
소망뉴스		230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도리어 우리 의지대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순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리라

글 김경진

시편 102편에는 소제목이 -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 달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이 토로한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라는 것이죠.

1-7절이 그 내용을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 뼈가 쏸과 같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나의 뼈에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그런데 기도자의 기도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만나이다 (시 102:13-14)

시온 곧 고향으로 돌아갈 해방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탄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러자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8·15 광복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8·15 광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8·15 광복의 사건으로부터 탄식하는 자에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광복 이후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6·25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가 한국전에 참전하며 급속도로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마땅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는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중동에 나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 산업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K-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며 열광을 얻고 있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리고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토록 강하고, 부유하고, 멋진 문화를 자랑하며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 철야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들.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영의 이유를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들의 간절한 탄원이 함께합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탄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소망에 놀라라는 초대

글 애슐리 헤일스



우리는 난간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자유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삶이 우리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는 한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 속에 갇히고 만다.

좋은 난간은 우리를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 줄 뿐 아니라 놀고 탐험하고 심지어 실패할 여지까지 허락한다. 그래도 무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창의력은 제약 속에서 활짝 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덕분에 행동할 수 있다. 문제는 대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서 깨어나려면 부활만큼이나 특단의 사건이 필요하다.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이렇게 썼다. “단지 무엇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자유의 위력을 맛보려면, 내 독립을 다른 종류의 의존과 맞바꾸어야 한다. 나 자신의 한계 앞에서 깨닫는 바지만,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더 여유로운 삶에 이르는 길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다.

아무도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예상하지 못했다. 메시아가 죽어 그 죽음을 통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 깜짝 놀라 차마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불협화음이 복음서의 일화들에게 나타나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 사랑이신 그분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는 “붙들 수 없는 것에 붙들리고” 안을 수 없는 것에 안겨야 한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에 붙들리면 놀랄 수밖에 없다. 소망에 놀라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를 방해하는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다. 한계의 미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소망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통제하고 속이는 사람, 인정과 명성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을 계속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대개 냉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상상력이 부진하여 자기 머리로 납득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은혜는 이것을 뒤집는다. 부활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다시 빛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평범한 때에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 그분은 도마에게 자신의 흉터에 손을 넣어 보게 하셨고, 공허히 여기는 마음으로 엠마오 도상을 걸으며 대화하셨다. 우리에게도 그저 길을 갈

이 가자고 청하신다. 도중에 **그분은 우리의 풀죽은 절망, 불신, 냉대, 슬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유한한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된다. 알다시피 소망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냉소와 통제와 경멸을 자제하자. 더 알기만 하면 더 능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자. 유한한 우리는 낙심한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께 가면 된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은 길이 어두울 때도 능히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 우리의 좋으신 길잡이가 이 길을 앞서가셨다.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초대한다. 이 소망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계는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가 아니라 청지기로써 잘 활용해야 할 절제의 은사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자유로운 유일한 인간이셨지만, 사랑으로 자유를 나누어 주시려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되 한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한계를 통해 사랑해야 한다.

주 하나님, 제 한계와 딱하도록 좁은 상상력에 부딪칠 때면

절망에 빠져 저 자신밖에 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여, 제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하소서.

저 자신에게도 그 이야기를 되뇌게 하소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부활을 닮은 작은 일들에 충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난간을 잡고 이 길을 저와 동행하게 하소서.

제 한계를 통해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저를 놀라게 하시고 떠받쳐 주소서.

아멘.

- 애슐리 헤일스 『작아서 아름다운 - 한계를 끌어안은 너른 삶』 (IVP, 2023) 169~181쪽 중.

WORD

역대상 · 욕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역대상 20:1-8

금요일

제34주 487 안양을 통해 읽기 201

말씀 속으로

1 해가 바뀔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노브라 앞은 사손에 맞닿을 때까지로 들어가 팔마를 제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요압이 팔마를 제쳐 팔마아가에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Joab led out the armed forces. He laid waste the land of the Ammonites and went to Hebron, and brought it,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Joab attacked Hebron and left it in ruins.

2 다윗이 그 왕이 마라에서 보지 않는 팔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곧 한 달란디라. 그 왕이 팔란을 자기 마라에 보내니 다윗이 보 그 상에서 노략한 팔란을 무주로 내놓고

David took the cornen from the head of their king - its weight was found to be a talent of gold, and it was set with precious stones - and it was placed on David's head. He took a great quantity of plunder from the city.

3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물과 피노기와 돌에라도 던져 깨 하나라 다윗이 왕은 자손에 모든 상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and brought out the people who were there, consigning them to labor with saws and with iron picks and axes. David did this to all the Ammonite towns. Then David and his entire army returned to Jerusalem.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책상 안에서

아래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답안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의 인자는 다함이 없습니다(창 12:12)

[illegible]

2. 하나님의 승리가 빈들 위에 임합니다(4-8)

[illegible]

적용 | 달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히말라에 다양한 구멍이 있는 히마갈의 은해에는 희로부터 돌아가는 순환한 마음이 함께합니다. 내 안에도 진실한 것을 부여 주셔서 거짓과 속임이 없고 히마갈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큰 자의 세계가 물러가고 높고 멀리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히마갈은 전에는 슬픔을 선물해 주셨고, 악을 선으로 일구어 가시는 여호와께의 순종과 목심하여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열심과 함께 세상 속으로

목상열기 | 마음에 외딴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원 8월 13-14) *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 있으며 주님의 은혜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순은 놀이였습니다. * "행복과 고통에 주님의 보람을 만들고, 사랑과 신의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만들어 냈다." * "우리의 삶을 의의라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신의가 주님께는 사랑에 나서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 "그들은 고통을 주님의 의의로 보게 되지만, 주님의 의의로 보았을 때 기쁨을 얻었다." *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들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는 순서로 맺어 주셨을 것입니다." *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순서로 주님의 사랑을 높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Q 기도Q 독서Q 운동Q 건강한 식습관Q 숙면Q 경험과 칭찬Q

역대상(20~29장)

언약궐을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후에 언약궐이 안치되고, 여호와와 영광의 빛이 그 땅을 서서히 적셔 나간다. 18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승전 기록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을 증언한다.

그런데 불미스런 일이 또다시 불어닥친다(21:1). 차오르는 승리의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가 어떤 점에서 죄악된 행동이었는지를 밝혀내지 않지만 전염병에 죽어 나간 칠만 명의 백성은 치러야 할 대가의 무게를 톡톡히 전한다(21:14).

사실 다윗 곁에는 충언을 전한 요압이 함께했다. 어찌하여 왕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번성케 하실 미래보다 현재를 움켜쥐려 하느냐고 질책한다(21:3).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제 의지를 꺾지 못하고 신하를 재촉할 뿐이다(21:4).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그에게 돌아온 건 비명 섞인 죽음이었다. 한 명, 한 명, 그것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한 여긴 백성이 죽어 나가는 참상을 목도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 그가 벌인 행동이 얼마나 미련했는가를 탄식하기에 이른다(21:8). 그때에 비로소 백성을 대신하여 다윗 자신과 그 집안을 쳐달라는 간구를 외치며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21:17).

다윗의 두 볼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중에 말씀이 섬광처럼 임한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21:18) 성전을 예비하신 이가 이번에는 한 이방인의 타작마당을 제단의 터로 준비시켜 주신다. 그 자리에서 지난 날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였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진노의 칼을 거두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21:26). 놀랍게도 다윗의 민낯이 드러난 자리는 이후 성전의 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22:1).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선행한다. 언제나 예비된 은혜이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살고 또 살게 된다. 그 사이에서 역대기 저자는 영광의 빛을 본 다윗의 믿음을 주목한다. 인간의 형질을 벗어날 수 없는 그였지만 돌이키는 믿음이 예비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다윗이 만전에 만전을 기한다. 요소요소 섬김이들을 불러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한다. 물론 최선의 열심을 다하여도 그의 경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그를 지나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왕과 백성은 완공된 성전을 누리며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한계를 고스란히 끌어안는다. 어쩌면 인구 조사 사건이 이 일을 보다 가
 능케 했는지도 모른다. 추악함을 알았지만, 또한 그 얼굴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
 는 하나님을 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다만 한 가지를 연신 부탁한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
 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
 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
 원히 버리시리라(28:9)

성전의 시작과 완성, 영원히 이어질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그 무엇이든 시작점을 기억하며 나
 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물에 가득한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신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2일 주간		
1(금)	역대상 20:1~8	다윗의 승전 기록
2(토)	욥기 18:1~21	빌닷의 두 번째 말
4~9일 주간		
4(월)	욥기 19:1~29	욥의 대답
5(화)	역대상 21:1~17	다윗의 인구 조사
6(수)	21:18~22:1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
7(목)	22:2~19	성전 건축 준비
8(금)	23:1~32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 레위인
9(토)	욥기 20:1~29	소발의 두 번째 말
11~16일 주간		
11(월)	욥기 21:1~16	욥의 대답 上
12(화)	역대상 24:1~31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 제사장
13(수)	25:1~31	찬송을 맡은 사람들
14(목)	26:1~19	성전의 문지기로 섬긴 사람들
15(금)	26:20~32	성전 공간을 맡은 사람들
16(토)	욥기 21:17~34	욥의 대답 下
18~23일 주간		
18(월)	욥기 22:1~30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19(화)	역대상 27:1~24	이스라엘 각 지파의 주요 지도자들
20(수)	27:25~34	왕을 섬기며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
21(목)	28:1~10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메시지 上
22(금)	28:11~21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메시지 下
23(토)	욥기 23:1~17	욥의 대답 上
25~30일 주간		
25(월)	욥기 24:1~25	욥의 대답 下
26(화)	역대상 29:1~9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27(수)	29:10~19	다윗의 감사 기도 上
28(목)	29:20~25	다윗의 감사 기도 下
29(금)	29:26~30	다윗의 행적
30(토)	욥기 25:1~26:14	빌닷의 세 번째 말과 욥의 대답

9

September 2023

SUN

MON

TUE

WED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권사회 월례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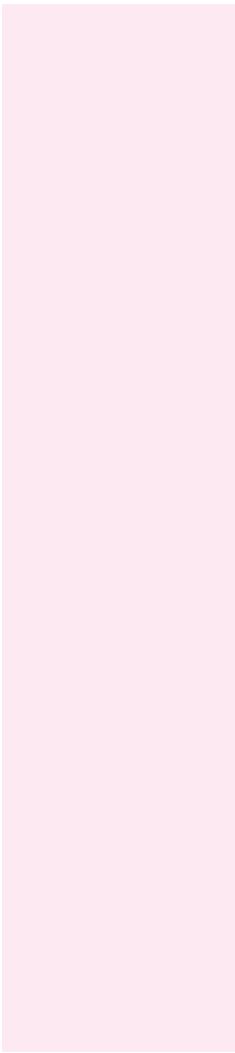
25

26

27

10	S	M	T	W	T	F	S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1	2
7	8 여전도회 연합예배 1차 세례교육(~9)	9
14	15 2차 세례교육(~16)	16
21	22	23
28	29 추석	30



 말씀 속으로

- 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Joab led out the armed forces. He laid waste the land of the Ammonites and went to Rabbah and besieged it,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Joab attacked Rabbah and left it in ruins.

- 2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David took the crown from the head of their king - its weight was found to be a talent of gold, and it was set with precious stones - and it was placed on David's head. He took a great quantity of plunder from the city

- 3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썰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and brought out the people who were there, consigning them to labor with saws and with iron picks and axes. David did this to all the Ammonite towns. Then David and his entire army returned to Jerusalem.

-
- 4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In the course of time, war broke out with the Philistines, at Gezer. At that time Sibbecai the Hushathite killed Sippai, one of the descendants of the Rephaites, and the Philistines were subjugated.

- 5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Elhanan son of Jair killed Lahmi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who had a spear with a shaft like a weaver's rod.

- 6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In still another battle, which took place at Gath, there was a huge man with six fingers on each hand and six toes on each foot-twenty-four in all. He also was descended from Rapha.

- 7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When he taunted Israel, Jonathan son of Shimea, David's brother, killed him.

- 8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These were descendants of Rapha in Gath, and they fell at the hands of David and his men.

20:2 왕의 머리에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2절
의 '왕'은 암몬 자손이 섬
긴 신상을 의미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1~3).

18장부터 다윗의 승전 기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흘러간 시간이 암시됩니다. ‘해가 바뀌어’(1절) 그 사이 이스라엘과 외부 세력 간의 전쟁은 끊임없었는데, 이번에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과의 전투에 출전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밝히는 1절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를 들추어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는 사 무엘하와 달리 역대기 저자는 이 시기에 다윗이 밋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다윗에게 주안점을 두었는가 하면, 허물 속에서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며,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왕관을 머리에 얹는 장면으로 종결됩니다(2절). 사실상 암몬의 패배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가 선포된 순간에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을 증언합니다(3절).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같은 땅을 다시 밟은 귀환 공동체에게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묵상하도록 이끅니다.

2. 하나님의 승리가 빈 들 위에 임합니다(4~8).

암몬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후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4절). 먼저는 후사 사람 십브개가 등장하며 키가 ‘큰’ 자에 속하는 십배라는 인물을 쳐죽이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후의 전쟁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죽임을 당하는데, 장장 3미터에 달하는 골리앗의 형제인 만큼 그 역시 얼마나 거구였는지 손에 든 창자루가 베를채 같이 굽었다고 전해집니다(5절). 이처럼 성경은 블레셋인을 가리켜 ‘큰’, ‘큰’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안겨 주었을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체격을 자랑하며 위압감을 주는 자여도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길 순 없는 법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진멸된 블레셋인의 처참한 패배를 남기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였다고 증언합니다(8절). 우리는 이 승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세력이 한창일 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죄로부터 돌이킨 다윗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내 안에도 진실한 영을 부어 주셔서 거짓과 속임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큰 자의 세력이 둘러싸고 능욕과 멸시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전례 없는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일구어 가시는 손길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올려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9:13~18 ¹³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¹⁴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종들며 앞장서 갑니다. ¹⁵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¹⁶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¹⁷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¹⁸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토요일

욥기 18:1~21

오늘의 찬송 25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말씀 속으로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Bildad the Shuhite replied:

2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When will you end these speeches? Be sensible, and then we can talk.

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Why are we regarded as cattle and considered stupid in your sight?

4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You who tear yourself to pieces in your anger, is the earth to be abandoned for your sake? Or must the rocks be moved from their place?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The lamp of the wicked is snuffed out; the flame of his fire stops burning.

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The light in his tent becomes dark; the lamp beside him goes out,

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The vigor of his step is weakened; his own schemes throw him down,

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His feet thrust him into a net and he wanders into its mesh,

9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A trap seizes him by the heel; a snare holds him fast,

10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A noose is hidden for him on the ground; a trap lies in his path,

11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Terrors startle him on every side and dog his every step.

- 12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Calamity is hungry for him; disaster is ready for him when he falls.

- 13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It eats away parts of his skin; death's firstborn devours his limbs.

- 14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He is torn from the security of his tent and marched off to the king of terrors.

- 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Fire resides in his tent; burning sulfur is scattered over his dwelling.

- 16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His roots dry up below and his branches wither above.

-
- 17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
해지지 않을 것이며

The memory of him perishes from the earth; he has no name
in the land.

- 18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
날 것이며

He is driven from light into darkness and is banished from the
world.

- 19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He has no offspring or descendants among his people, no
survivor where once he lived.

- 20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
라리라

Men of the west are appalled at his fate; men of the east are
seized with horror.

- 21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Surely such is the dwelling of an evil man; such is the place of
one who knows not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빌닷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됩니다(1~4).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가 있고, 빌닷의 두 번째 훈계가 이어집니다. 그 역시 엘리바스와 유사하게 자신의 말을 듣기보다 분을 표하는 욕을 보면서 목소리를 한껏 높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3절) 빌닷과 다른 두 친구의 말을 들으며 ‘재 같은 속담거리’에 불과하다고 비아냥거린 욕에게 일종의 자기변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세 친구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충고를 건네주지만 도리어 비난을 받는 처지에 당혹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격언을 주는 친구들의 마음도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4절) 그러니까 욕이 누구이길래 그의 토로에 자연이 움직이고, 신이 응답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 모습에서 친구가 겪는 아픔에 관심을 두기보다 제 이야기를 늘어놓고픈 빌닷의 심정이 보여집니다.

2. 하나님은 길을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5~21).

빌닷은 욕의 현실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내린 판결을 고수하며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는 빌닷이야말로 고집스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본 단락에서 그는 흔히 ‘악인의 행로’라고 불리는 길을 묘사하며 욕의 처지가 꼭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에 의하면 악인의 장막에는 불이 꺼지고, 아무리 활기찬 걸음일지라도 꾀에 빠져들게 되며 울무에 얽힌 몸은 움짇달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악인은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불행보다도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17절).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잊히 기억되는 법이지만 악인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말은 한 자락 소망마저 남지 못한 욕의 현실을 일러 줍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은 그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의인’ 욕의 길을 보고 계시며 기억하여 주시니 고난 뒤에 소망, 고난 뒤에 기쁨, 고난 뒤에 삶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스스로의 생각을 고수하며 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빌닷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나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2. 하나님은 잊혀지는 악인의 인생에 삶을 허락하시고, 길이길이 기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40~143,146 ¹⁴⁰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¹⁴¹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¹⁴²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¹⁴³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¹⁴⁶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글 원씨니 (P국)

고마우신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서울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몸에 일어나는 이상 증세들로 혹시나 하는 불편함이 있던 차에 오빠의 도움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와 대상포진 백신까지 접종하고 복귀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쉬엄 쉬엄 몸을 쉬면서 현재 증상들과 함께 잘 동행하라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으나,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은 낭랑 18세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오늘은 너스린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지금 여성 질환 수술을 받고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너스린의 병을 검사하고, 수술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을 마친 너스린은 지금부터 약 한 달간의 관찰 기간을 보내고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너스린은 이번에 제가 인수한 '청소년 직업 훈련 학교'의 씨느왈의 어머니입니다. 씨느왈은 20살이고 너스린은 33살입니다.

너스린은 12살에 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13살에 씨느왈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을 집행한 주변 가족들과 목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어린 12살 소녀가 18살로 둔갑되어 모든 불행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째 씨느왈을 낳은 후 여성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기들은 낳았지만 둘째 남자아이는 조금 있다가 사망을 했고, 막둥이는 5살 때 엄마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기 같은 여인이 껴안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씨느왈은 그녀의 착한 맏아들입니다. 씨느왈이 직업 학교 호스텔에서 몇 번 가출을 하여서 주변의 시선은 그가 마약을 하고 있기에 가출을 한다는 등 호스텔 퇴출 일보 직전이었기에, 그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 너슬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싸느왈은 집에 양식이 떨어지고 불쌍한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싸느왈은 직업 훈련 센터의 후원으로 여기서 익힌 모터사이클 기술로 자신의 가게를 열어 가족을 돌볼 것입니다.



기도 제목

1. 이곳의 소수자 기독교인은 다수자 M들의 횡포로 삶이 곤고합니다. 엄마 너슬린은 자신과 싸느왈이 문맹일지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 학교 졸업을 시켰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싸느왈이 청소년 직업 훈련을 거치며 온 가족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 직업 훈련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의 기술 훈련과 더불어 영과 육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이곳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이렇게 삶에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은 마약에 빠지거나, 본드 흡입과 자동차 윤활유 흡입을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들로 기독교인들의 위상도 추락되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 사역자를 보내 주셔서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저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9/3~9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시 29:1)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

욥기 19:1~29

월요일

오늘의 찬송 88 내 진정 사모하는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torment me and crush me with words?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Ten times now you have reproached me; shamelessly you attack me.

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If it is true that I have gone astray, my error remains my concern alone.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If indeed you would exalt yourselves above me and use my humiliation against me,

-
-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then know that God has wronged me and drawn his net
around me.

-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
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Though I cry, 'I've been wronged!' I get no response; though I
call for help, there is no justice.

-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He has blocked my way so I cannot pass; he has shrouded my
paths in darkness.

-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He has stripped me of my honor and removed the crown from
my head.

-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He tears me down on every side till I am gone; he uproots my
hope like a tree.

-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His anger burns against me; he counts me among his enemies.

19:10 죽었구나
히브리어 '갔구나'

-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His troops advance in force; they build a siege ramp against me and encamp around my tent,

-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He has alienated my brothers from me; my acquaintances are completely estranged from me,

- 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My kinsmen have gone away; my friends have forgotten me,

- 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My guests and my maidservants count me a stranger; they look upon me as an alien,

-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I summon my servant, but he does not answer, though I beg him with my own mouth,

-
- 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My breath is offensive to my wife; I am loathsome to my own brothers.

- 18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Even the little boys scorn me; when I appear, they ridicule me.

- 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All my intimate friends detest me; those I love have turned against me.

-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I am nothing but skin and bones; I have escaped with only the skin of my teeth.

-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Have pity on me, my friends, have pity, for the hand of God has struck me.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Why do you pursue me as God does? Will you never get enough of my flesh?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Oh, that my words were recorded, that they were written on a scroll,

24 철폭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that they were inscribed with an iron tool on lead, or engraved in rock forever!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I myself will see him with my own eyes - I, and not another,
How my heart yearns within me!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
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If you say, 'How we will hound him, since the root of the
trouble lies in him,'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you should fear the sword yourselves; for wrath will bring
punishment by the sword, and then you will know that there
is judgment."

19:27 마음이

히브리어) '공팔'을 의
미함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1~22).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18:21) 욥에게 악인이라고 선고를 내린 빌닷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칠어지는 세 친구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러자 누구 하나 제 편이 없는 것처럼 고독하고 억울했을 욥의 원망도 깊어져 갑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5절) 한마디로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 모두 자만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를 믿음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도무지 설명되거나 납득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을 보고 탄원해야겠다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형제와 친척, 집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내, 자식,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외롭고 홀로 있어도 외로운 삶을 오롯이 감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믿음이 욥에게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2. 마음의 불순물이 견히고 새로운 씩이 솟아납니다(23~29).

욥기서에 관통하는 주된 주제 중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등을 돌리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끈이 되신다는 진리를 전합니다(25절). 번민과 고뇌, 한탄과 분노, 원망과 울분을 통과하는 중에 이것을 알게 된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살갓이 다 찢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찢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26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는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1:21).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번뇌는 이어지지만 마음의 불순물은 점차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전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욥의 여정 안에 하나님을 뵈우는 날을 고대하는 기다림, 자신을 둘러싼 헛된 위로와 거짓말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27~2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함께 있으나 홀로 있으나 외로운 인간의 실존을 그리는 욥기서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경외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2. 이유를 규명하고 싶은 욥의 심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차원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그의 변화된 마음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4,12 ¹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² 나의 탄식 소리를 귀 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³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⁴ 주님께서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¹²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Satan rose up against Israel and incited David to take a census of Israel.

-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So David said to Joab and the commanders of the troops, "Go and count the Israelites from Beersheba to Dan. Then report back to me so that I may know how many there are."

- 3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But Joab replied, "May the LORD multiply his troops a hundred times over. My lord the king, are they not all my lord's subjects? Why does my lord want to do this? Why should he bring guilt on Israel?"

- 4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The king's word, however, overruled Joab; so Joab left and went throughout Israel and then came back to Jerusalem.

-
- 5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뿔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뿔 만한 자가 사
십칠만 명이라

Joab reported the number of the fighting men to David: In all Israel there were one million one hundred thousand men who could handle a sword, including four hundred and seventy thousand in Judah.

- 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But Joab did not include Levi and Benjamin in the numbering, because the king's command was repulsive to him.

- 7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This command was also evil in the sight of God; so he punished Israel.

-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
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Then David said to God, "I have sinned greatly by doing this. Now, I beg you, take away the guilt of your servant. I have done a very foolish thing."

- 9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Gad, David's seer,

-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Go and tell Dav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giving you three options. Choose one of them for me to carry out against you.’”

-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So Gad went to David and said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Take your choice:’

- 12 혹 삼 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와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와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three years of famine, three months of being swept away before your enemies, with their swords overtaking you, or three days of the sword of the LORD - days of plague in the land, with the angel of the LORD ravaging every part of Israel.’ Now then, decide how I should answer the one who sent me.”

- 13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David said to Gad, “I am in deep distress. Let me fall into the hands of the LORD, for his mercy is very great; but do not let me fall into the hands of men.”

-
- 14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더라

So the LORD sent a plague on Israel, and seventy thousand men of Israel fell dead.

- 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And God sent an angel to destroy Jerusalem. But as the angel was doing so, the LORD saw it and was grieved because of the calamity and said to the angel who was destroying the people, "Enough! Withdraw your hand." The angel of the LORD was then standing at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쏜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굽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David looked up and saw the angel of the LORD standing between heaven and earth,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extended over Jerusalem. Then David and the elders, clothed in sackcloth, fell facedown.

- 17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David said to God, "Was it not I who ordered the fighting men to be counted? I am the one who has sinned and done wrong. These are but sheep. What have they done? O LORD my God, let your hand fall upon me and my family, but do not let this plague remain on your peop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됩니다(1~8).

다윗의 왕조가 번영을 누려가는 때에 뜻밖에도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1절) 1절을 근거로 학자들은 왕과 백성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 조사가 죄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명백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승전가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 느닷없이 찾아온 심판과, 이후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주목을 요청합니다(22장).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칭송받은 다윗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과되지 않으면서도 악에서 선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본문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8절)

2. 다윗이 용서의 간구를 드립니다(9~17).

허물의 사함은 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세 가지 심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9~11절). 말씀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대가임을 체감했을 듯합니다. 삼 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이어질 적군의 위협, 사흘에 걸쳐 일어날 전염병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선택됩니다(13절). 그러자 안타깝게도 다윗을 대신하여 칠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죽어 나가고,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허물을 자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14~17절). 그 사이 이미 애통하셨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손을 거두도록 명하셨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시켜 주셔서 다윗과 백성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15절).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한번 회복된 시간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윗의 인구 조사, 사흘의 전염병,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악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2.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1~5,11 ¹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²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³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⁴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허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⁵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¹¹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21:18~22:1

오늘의 찬송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속으로

- 18 여호와와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Then the angel of the LORD ordered Gad to tell David to go up and build an altar to the LORD on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 19 이에 갓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So David went up in obedience to the word that Gad had spoken in the name of the LORD.

- 20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While Araunah was threshing wheat, he turned and saw the angel; his four sons who were with him hid themselves.

-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Then David approached, and when Araunah looked and saw him, he left the threshing floor and bowed down before Davi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
-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David said to him, "Let me have the site of your threshing floor so I can build an altar to the LORD, that the plague on the people may be stopped. Sell it to me at the full price."

-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Araunah said to David, "Take it! Let my lord the king do whatever pleases him. Look, I will give the oxen for the burnt offerings, the threshing sledges for the wood, and the wheat for the grain offering. I will give all this."

-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But King David replied to Araunah, "No, I insist on paying the full price. I will not take for the LORD what is yours, or sacrifice a burnt offering that costs me nothing."

- 25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So David paid Araunah six hundred shekels of gold for the site.

-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David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He called on the LORD, and the LORD answered him with fire from heaven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 27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Then the LORD spoke to the angel, and he put his sword back into its sheath.

- 28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At that time, when David saw that the LORD had answered him on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he offered sacrifices there.

- 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The tabernacle of the LORD, which Moses had made in the desert, and the altar of burnt offering were at that time on the high place at Gibeon.

- 30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But David could not go before it to inquire of God, because he was afraid of the sword of the angel of the LORD.

1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Then David said, "The house of the LORD God is to be here, and also the altar of burnt offering for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이 제단의 터를 삽니다(18~27).

사후에 걸쳐 일어난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 칠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장소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소식이 이전에는 재앙을 예고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전해지고, 말씀을 들은 다윗이 지체함 없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18~19절). 그때에 오르난은 밭을 타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타작’은 종종 심판과 구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타작하는 오르난의 집을 찾은 발걸음 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왕의 행차에 깜짝 놀란 오르난이 왕의 음성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요.”(22절) 죄를 인정하며 하나하나 값을 지불하는 결단과 함께 은혜로 준비된 제단의 터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올려지자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관계가 열려집니다(24~27절). 은이 아닌 금으로 지불된 이 땅은 훗날 성전의 터로 자리매김합니다.

2. 다윗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28~22:1).

역대기 저자는 바세바와의 간음은 생략하였으나 인구 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죄는 명백히 기록하며, 왕의 허물을 덮으시고 더 큰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길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마음을 다하여 올려 드린 제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28절). 이러한 과정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살 길을 얻게 되는 성전의 자리로 모두를 이끌어 가는 흐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나서는 다윗을 보여 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일부 터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근원적인 이유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도, 아들 솔로몬도,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까닭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앞둔 다윗을 다시금 성결케 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행동합니까?
2.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안에도 깊이 머물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6~9,17~19 ⁶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⁷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⁹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¹⁷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¹⁸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¹⁹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So David gave orders to assemble the aliens living in Israel, and from among them he appointed stonecutters to prepare dressed stone for building the house of God.

- 3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털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He provided a large amount of iron to make nails for the doors of the gateways and for the fittings, and more bronze than could be weighed.

- 4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He also provided more cedar logs than could be counted, for the Sidonians and Tyrians had brought large numbers of them to David.

-
- 5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 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David said, "My son Solomon is young and inexperienced, and the house to be built for the LORD should be of great magnificence and fame and splendor in the sight of all the nations. Therefore I will make preparations for it." So David made extensive preparations before his death,

- 6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Then he called for his son Solomon and charged him to build a house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 7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David said to Solomon: "My son, I had it in my heart to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But this word of the LORD came to me: 'You have shed much blood and have fought many wars. You are not to build a house for my Name, because you have shed much blood on the earth in my sight,

- 9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But you will have a son who will be a man of peace and rest, and I will give him rest from all his enemies on every side. His name will be Solomon, and I will grant Israel peace and quiet during his reign.

-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He will be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over Israel forever.

- 11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Now, my son, the LORD be with you, and may you have success and build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as he said you would.

- 12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May the LORD give you discretion and understanding when he puts you in command over Israel, so that you may keep the law of the LORD your God.

-
- 13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Then you will have success if you are careful to observe the decrees and laws that the LORD gave Moses for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 14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I have taken great pains to provide for the temple of the LORD a hundred thousand talents of gold, a million talents of silver, quantities of bronze and iron too great to be weighed, and wood and stone. And you may add to them.

- 15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You have many workmen: stonecutters, masons and carpenters, as well as men skilled in every kind of work

-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하니라

in gold and silver, bronze and iron - craftsmen beyond number. Now begin the work, and the LORD be with you."

- 17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Then David ordered all the leaders of Israel to help his son Solomon.

- 1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He said to them, "Is not the LORD your God with you? And has he not granted you rest on every side? For he has handed the inhabitants of the land over to me, and the land is subject to the LORD and to his people.

- 19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Now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 your God. Begin to build the sanctuary of the LORD God, so that you may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the sacred articles belonging to God into the temple that will be built for the Name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이 솔로몬을 격려합니다(2~16).

타작마당에서 드러진 제사 이후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17:12)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예고하시며, 다윗의 시대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초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 먼저 본을 보이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방인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도 함께합니다(2~5절). 마음 한편엔 섭섭함도 들었을 법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의 믿음은 큰일을 앞둔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산에도 드러납니다. “내 아들이야,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11절) 성전 건축을 앞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풍부한 자원이나 왕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닌 오직 지혜와 충명을 따라 보고, 느끼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2절).

2.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17~19)

온갖 시험이란 시험은 다 겪어 본 다윗이 붙잡은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며 살아온 그의 고백이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흘러들어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13절),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와 뜻을 묻고 찾는 일에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하나되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19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의 시대가 열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왕과 백성이 연합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나타내어질 수 없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다윗의 권면은 귀환 공동체를 거쳐 오늘의 우리에게도 와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이스라엘의 주인을 안 모세와 다윗의 믿음을 통해 여호수아, 솔로몬 시대가 이어집니다. 질서를 세우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2. 인생의 고초를 거치며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에 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두려워말고 담대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함께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9:1~2,11 ¹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²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¹¹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23:1~32

오늘의 찬송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When David was old and full of years, he made his son Solomon king over Israel.

- 2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He also gathered together all the leaders of Israel, as well as the priests and Levites.

- 3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The Levites thirty years old or more were counted, and the total number of men was thirty-eight thousand.

- 4 그중의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David said, "Of these, twenty-four thousand are to supervise the work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six thousand are to be officials and judges.

-
- 5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Four thousand are to be gatekeepers and four thousand are to praise the LORD with the musical instruments I have provided for that purpose.”

- 6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David divided the Levites into groups corresponding to the sons of Levi: Gershon, Kohath and Merari.

- 7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Belonging to the Gershonites: Ladan and Shimei.

-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The sons of Ladan: Jehiel the first, Zetham and Joel - three in all.

-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The sons of Shimei: Shelomoth, Haziël and Haran - three in all. These were the heads of the families of Ladan.

-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And the sons of Shimei: Jahath, Ziza, Jeush and Beriah. These were the sons of Shimei - four in all.

- 11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Jahath was the first and Ziza the second, but Jeush and Beriah did not have many sons; so they were counted as one family with one assignment.

-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사람이라

The sons of Kohath: Amram, Izhar, Hebron and Uzziel - four in all.

- 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The sons of Amram: Aaron and Moses. Aaron was set apart, he and his descendants forever, to consecrate the most holy things, to offer sacrifices before the LORD,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pronounce blessings in his name forever.

-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The sons of Moses the man of God were counted as part of the tribe of Levi.

- 15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The sons of Moses: Gershom and Eliezer.

16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The descendants of Gershom: Shubael was the first,

17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The descendants of Eliezer: Rehabiah was the first, Eliezer had no other sons, but the sons of Rehabiah were very numerous,

18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The sons of Izhar: Shelomith was the first,

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The sons of Hebron: Jeriah the first, Amariah the second, Jahaziel the third and Jekameam the fourth,

20 웃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잇시아더라

The sons of Uzziel: Micah the first and Isshiah the second,

21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The sons of Merari: Mahli and Mushi. The sons of Mahli: Eleazar and Kish,

- 22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Eleazar died without having sons: he had only daughters. Their cousins, the sons of Kish, married them.

- 23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The sons of Mushi: Mahli, Eder and Jerimoth - three in all.

- 24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Levi by their families - the heads of families as they were registered under their names and counted individually, that is, the workers twenty years old or more who served in the temple of the LORD.

- 25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For David had said, "Sinc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granted rest to his people and has come to dwell in Jerusalem forever,

- 26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the Levites no longer need to carry the tabernacle or any of the articles used in its service."

- 27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According to the last instructions of David, the Levites were counted from those twenty years old or more.

-
- 28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와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The duty of the Levites was to help Aaron's descendants in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to be in charge of the courtyards, the side rooms, the purification of all sacred things and the performance of other duties at the house of God.

- 29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They were in charge of the bread set out on the table, the flour for the grain offerings, the unleavened wafers, the baking and the mixing, and all measurements of quantity and size.

- 30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They were also to stand every morning to thank and praise the LORD. They were to do the same in the evening

- 31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and whenever burnt offerings were presented to the LORD on Sabbaths and at New Moon festivals and at appointed feasts, They were to serve before the LORD regularly in the proper number and in the way prescribed for them.

- 32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And so the Levites carried out their responsibilities for the Tent of Meeting, for the Holy Place and, under their brothers the descendants of Aaron, for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전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자가 소개됩니다(1~23).

2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즉 지도자를 주축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뜻을 다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본 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로 관심사가 전환되며 해당 인물이 소개됩니다. 시작점에 있어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먼저 기록하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을 알립니다(1~2절). 레위인에 대한 강조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들 중에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음악가로 활약하며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왕권의 계승에서 출발하여 성전과 관련된 자들이 나열되는 흐름은 당대에 성전이 가진 의미를 암시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하나님이 찾으신 성전, 하나님이 찾으신 백성, 하나님이 찾으신 땅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신학을 고향을 찾은 백성에게 재정립해 줍니다.

2. 하나님이 정성된 섬김을 기뻐하십니다(24~32).

본 단락은 1~23절에 걸쳐 소개된 명단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섬기고, 섬기고, 또 섬겼다는 기록은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과 짝을 이루며 이스라엘이 섬김 대상이 곧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내용과 연결되는데(22:1~13),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왕을 주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여든 백성의 순종이 빛을 발하던 다윗의 시대를 회고시키며, 귀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고대하시며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는 신학이 귀환 공동체 안에 정립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살피면서 역대기서가 주는 근원적인 메시지를 되돌아봅시다.
2. 성경은 '섬기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1,7~10 ¹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⁸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⁹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¹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Zophar the Naamathite replied: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금함이니라

"My troubled thoughts prompt me to answer because I am greatly disturbed.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I hear a rebuke that dishonors me, and my understanding inspires me to reply.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Surely you know how it has been from of old, ever since man was placed on the earth,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
도 잠깐이니라

that the mirth of the wicked is brief, the joy of the godless lasts but a moment.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Though his pride reaches to the heavens and his head touches
the clouds,

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he will perish forever, like his own dung; those who have seen
him will say, 'Where is he?'

8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Like a dream he flies away, no more to be found, banished like
a vision of the night,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The eye that saw him will not see him again; his place will look
on him no more,

10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
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His children must make amends to the poor; his own hands
must give back his wealth,

- 11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The youthful vigor that fills his bones will lie with him in the dust.

- 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Though evil is sweet in his mouth and he hides it under his tongue,

- 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though he cannot bear to let it go and keeps it in his mouth,

- 14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yet his food will turn sour in his stomach; it will become the venom of serpents within him,

-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He will spit out the riches he swallowed; God will make his stomach vomit them up.

- 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He will suck the poison of serpents; the fangs of an adder will kill him.

17 그는 강 곧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He will not enjoy the streams, the rivers flowing with honey and cream,

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What he toiled for he must give back uneaten; he will not enjoy the profit from his trading,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For he has oppressed the poor and left them destitute; he has seized houses he did not build,

20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Surely he will have no respite from his craving; he cannot save himself by his treasure,

21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Nothing is left for him to devour; his prosperity will not endure,

20:17 영긴 젖
히브리어 '버터'

- 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In the midst of his plenty, distress will overtake him; the full force of misery will come upon him.

- 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When he has filled his belly, God will vent his burning anger against him and rain down his blows upon him.

- 24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Though he flees from an iron weapon, a bronze-tipped arrow pierces him.

- 25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He pulls it out of his back, the gleaming point out of his liver. Terrors will come over him;

- 26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total darkness lies in wait for his treasures, A fire unfanned will consume him and devour what is left in his tent.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
날 것인즉

The heavens will expose his guilt; the earth will rise up against
him,

28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A flood will carry off his house, rushing waters on the day of
God's wrath,

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
신 기업이니라

Such is the fate God allots the wicked, the heritage appointed
for them by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소발의 두 번째 말이 전개됩니다(1~19).

13장을 기점으로 친구들과 심리적인 결별을 선언한 이후, 친구들을 향한 욥의 탄식이 무게감을 더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19:29) 그러자 이번에는 친구 소발이 두 번째 말을 이어 가며 욥의 말에 응수하기 시작합니다. 두 친구들이 보인 자기 변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발의 말에서 부의 논리가 보입니다. 넉넉한 부와 재물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한다면, 역으로 모든 소유를 잃고 알몸 하나만 남겨진 현실은 욥이 악인임을 확증한다는 셈입니다. 소발의 발언은 한때는 동방의 제일가는 부자이기에 욥을 칭송하였다면, 지금은 사라진 부를 울무 삼아 정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재산마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다른 이의 수고를 강탈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친구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비난하는 소발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보다, 그가 가진 재물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2. 믿는 자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20~29).

소발이 욥이 말한 말을 되받아치며 칼의 심판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23절) 한마디로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 악인이 아니라 욥이 곧 악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를 평가하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악인에게서는 형벌이 따른다는 믿음에는 흥미롭게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의인에게서는 ‘삶’ 즉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을 전하는 욥기서는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한다는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죽은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욥이 끝내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한 이유이자, 믿는 자의 기업은 반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는 일에는 서슴없지만 그의 회복을 위해 인내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고와 아픔,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이 생각난다면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삶에 동참합시다.
2. 기쁨과 슬픔, 곤고함과 평안함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11,15~17 ¹¹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¹⁵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¹⁶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¹⁷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 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은혜의 소낙비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버섯 불고기, 미트 스파게티, 햄박스테이크
, 돈가스, 토제 떡볶이,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여아를 데리고 잔영도 했어요
앞에 나가서 운동도 했어요

소망부 수련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수련회에 또 가고 싶어요

소망1부 임성현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_ 이지현 집사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HI:STORY'였습니다. 히스토리의 사전적 의미가 '역사라, 성경 속 인물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분의 스토리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 서툴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땐 눈물부터 앞서는 초보 엄마입니다. 그런데 김지혜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언가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몰랐을까'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수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수아에게 장애를 주신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수련회에 오게 하신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짓누른 것들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예배의 감동은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 소망부 전체가 엄마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지치지 않고 완주해 내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의 경주를 이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소망부에서 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아를 함께 상상해 봅니다.

우리 아들 첫 수련회 이만하면 성공적! _ 나슬아 성도

올해 여름, 조은이의 첫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집회에 참여한 지 너무 오랜만이라 눈만 감아도 그저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눈을 감고 울면서 찬양하는데 누군가 저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서 눈을 떠보니 조은이었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는 아들을 보니 뜨거운 은혜가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하지마', '안돼'를 많이 듣고 생활하는 조은이가 소망부에서는 '잘한다', '귀하다', '귀엽다'라고 사랑을 듬뿍 주시는 선생님들과 자유로이 기뻐 뛰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의 은혜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가득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조은이는 '수양관에서 불렀지'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검색해서 듣습니다. 매일 저랑 길을 걸으면서, 또 자기 전에 누우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은이를 통해 우리 가족의 잃었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앞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점심 시간에 깜짝 등장으로 조은이를 행복하게 해 주신, 조은이에게는 최고의 연예인 김정진 담임목사님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소망부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_ 정래중, 은빛나 성도

소망부 여름수련회 공지를 듣고는 너무 기대되고 설렘이었지만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캠프를 가는 것이 처음이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소망부 여름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셨을 때 엄마인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많은 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힘든 일을 자처한다고 생각하니 광고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소망부 여름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여는 예배부터 매우 뜨거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아이가 잘 참여하고 식사도 잘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잘 때만이라도 아이를 케어해 주고 싶어 가게 되었지만 도리어 제가 저녁 집회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귀가 예민해 평소에는 다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귀를 막곤 하는데, 감사하게도 집회 때는 귀를 막지 않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 시간, 모든 프로그램마다 목사님 이하 부장 장로님과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망공동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9/10~16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 71:8)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월요일

욥기 21:1~16

오늘의 찬송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 니라

“Listen carefully to my words; let this be the consolation you give me.

3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 니라

Bear with me while I speak, and after I have spoken, mock on.

4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 급하지 아니하겠느냐

Is my complaint directed to man? Why should I not be impatient?

5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Look at me and be astonished; clap your hand over your mouth,

6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When I think about this, I am terrified; trembling seizes my body.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Why do the wicked live on, growing old and increasing in power?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하구나

They see their children established around them, their offspring before their eyes.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Their homes are safe and free from fear; the rod of God is not upon them.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Their bulls never fail to breed; their cows calve and do not miscarry.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They send forth their children as a flock; their little ones dance about.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They sing to the music of tambourine and harp; they make merry to the sound of the flute.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 느니라

They spend their years in prosperity and go down to the grave in peace.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Yet they say to God, 'Leave us alone! We have no desire to know your ways.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Who is the Almighty, that we should serve him? What would we gain by praying to him?

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But their prosperity is not in their own hands, so I stand aloof from the counsel of the wick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이 세 친구의 발언을 반박합니다(1~13).

어김없이 정죄하려 드는 소발의 두 번째 말을 듣고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2절) 그리고는 비난을 일삼는 일에만 마음이 앞서는 친구들을 향하여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3절).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이 말 끝에 흥미로운 발언이 이어집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세 친구의 논리를 정면으로 맞서 대항하기 시작한 셈인데, 요지는 세상일이란 결코 다 알 수 없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따르면 악인이어도 장수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기르는 가축은 물론이요, 그의 자손마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모여 사는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디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반박합니다.

2. 정직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14~16).

범사에 잘되는 듯한 악인의 행로를 묘사하면서 욥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말마따나 그가 정말 악인이 맞다면, 동방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행동할 수 있었겠냐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과 악인을 결정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나고 한다.”(14절) 당장에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가능할지 몰라도 번영을 가져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한다면,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과 악인을 스스로 구분시키며 그가 얼마나 정직한 자였는지를 느끼게 만드는 한편,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을 가장 두려워한 의인의 믿음을 보여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실감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터득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오늘도 나를 빛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2. 욥의 담대한 발언은 그의 진실됨을 증명합니다. 진실하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 가정,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진실이 승리하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1:12~15 ¹²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¹³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¹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¹⁵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These were the divisions of the sons of Aaron: The sons of Aaron were Nadab, Abihu, Eleazar and Ithamar.

- 2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But Nadab and Abihu died before their father did, and they had no sons; so Eleazar and Ithamar served as the priests.

-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With the help of Zadok a descendant of Eleazar and Ahimelech a descendant of Ithamar, David separated them into divisions for their appointed order of ministering.

-
-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A larger number of leaders were found among Eleazar's descendants than among Ithamar's, and they were divided accordingly: sixteen heads of families from Eleazar's descendants and eight heads of families from Ithamar's descendants.

- 5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They divided them impartially by drawing lots, for there were officials of the sanctuary and officials of God among the descendants of both Eleazar and Ithamar.

- 6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The scribe Shemaiah son of Nethanel, a Levite, recorded their names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of the officials: Zadok the priest, Ahimelech son of Abiathar and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 - one family being taken from Eleazar and then one from Ithamar.

- 7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여호아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The first lot fell to Jehoiarib, the second to Jedaiah,

12

— 화

8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the third to Harim, the fourth to Seorim,

9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the fifth to Malkijah, the sixth to Mijamin,

10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the seventh to Hakkoz, the eighth to Abijah,

11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the ninth to Jeshua, the tenth to Shecaniah,

12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the eleventh to Eliashib, the twelfth to Jakim,

13 열셋째는 홉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the thirteenth to Huppah, the fourteenth to Jeshebeab,

14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the fifteenth to Bilgah, the sixteenth to Immer,

15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the seventeenth to Hezir, the eighteenth to Happizzez,

16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the nineteenth to Pethahiah, the twentieth to Jehezkel,

17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the twenty-first to Jakin, the twenty-second to Gamul,

18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the twenty-third to Delaiah and the twenty-fourth to Maaziah,

19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This was their appointed order of ministering when they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prescribed for them by their forefather Aaron,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d commanded him,

20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As for the rest of the descendants of Levi: from the sons of Amram: Shubael; from the sons of Shubael: Jehdeiah,

21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잇시아요

As for Rehabiah, from his sons: Isshiah was the first,

- 22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합이요

From the Izharites: Shelomoth; from the sons of Shelomoth: Jahath,

- 23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The sons of Hebron: Jeriah the first, Amariah the second, Jahaziel the third and Jekameam the fourth,

- 24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The son of Uzziel: Micah; from the sons of Micah: Shamir,

- 25 미가의 아우는 잇시아라 잇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라이며

The brother of Micah: Isshiah; from the sons of Isshiah: Zechariah,

- 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The sons of Merari: Mahli and Mushi. The son of Jaaziah: Beno,

- 27 므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The sons of Merari: from Jaaziah: Beno, Shoham, Zaccur and Ibrî,

28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From Mahli: Eleazar, who had no sons,

29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므엘이요

From Kish: the son of Kish: Jerahmeel,

30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And the sons of Mushi: Mahli, Eder and Jerimoth, These were the Levites, according to their families,

31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They also cast lots, just as their brothers the descendants of Aaron did, in the presence of King David and of Zadok, Ahimelech, and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 The families of the oldest brother were treated the same as those of the younges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가문의 대표성을 따라 제사장이 선별됩니다(1~19).

23장은 ‘섬김’을 주제로 제사장을 보조하고, 성전 활동을 유지·관리하는 레위인이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제사장’으로 이동하며 24장은 가문에 따라 제사장으로 선출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모세 시대 주어진 규례를 따라 아론 가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는데, 제비뽑기로 이루어진 선출 과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지도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합니다(5절). 선발된 총 스물네 명의 제사장은 아론의 때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에 순종하며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 갑니다(19절). 그 일선상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섰던 시간을 따라 성전 건축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제사장을 도운 레위 자손이 뽑힙니다(20~31).

제사장 선출에 이어서 ‘레위 자손 중 남은 자’가 언급됩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이 나왔고, 24장 1~19절에 걸쳐서는 제사장이 거론되었다가 레위의 남은 자손이 재등장하는 흐름 속에서 흥미로운 통찰이 제기됩니다. 즉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의 비중이나 혹은 중요도에 따라 배열이 이루어졌다고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를 도왔다는 점에 무게중심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가리키는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따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연결성을 시사하는 듯 이들을 뽑는 과정도 제비뽑기로 이루어집니다(31절). 한편으로 제비를 뽑은 자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레위의 우두머리 앞이었다는 기록은 사실상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암시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 가문이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3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 제사장,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세워지고 있습니까?
2. 여호와와 이끄심 앞에 겸비하게 선 이스라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2:1~3 ¹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³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David, together with the commanders of the army, set apart some of the sons of Asaph, Heman and Jeduthun for the ministry of prophesying, accompanied by harps, lyres and cymbals. Here is the list of the men who performed this service:

- 2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From the sons of Asaph: Zaccur, Joseph, Nethaniah and Asarelah. The sons of Asaph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Asaph, who prophesied under the king's supervision.

- 3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뻬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As for Jeduthun, from his sons: Gedaliah, Zeri, Jeshaiiah, Shimei, Hashabiah and Mattithiah, six in a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 Jeduthun, who prophesied, using the harp in thanking and praising the LORD.

-
- 4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맛다나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러못과 하나나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웃이라

As for Heman, from his sons: Bukkiah, Mattaniah, Uzziel, Shubael and Jerimoth; Hananiah, Hanani, Eliathah, Giddalti and Romanti-Ezer; Joshbekashah, Mallothi, Hothir and Mahazioth,

- 5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All these were sons of Heman the king's seer. They were given him through the promises of God to exalt him. God gave Heman fourteen sons and three daughters.

- 6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All these men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s for the music of the temple of the LORD, with cymbals, lyres and harps, for the ministry at the house of God. Asaph, Jeduthun and Heman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ing.

- 7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Along with their relatives - all of them trained and skilled in music for the LORD - they numbered 288.

25:1 군대 지휘자들

레위 사람의 사역을 지휘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25:1~2 신령한

히브리어) '예언'을 뜻함

25:3 시므이

히브리어) '시므이'가 없음
헬라어) '시므이'

- 8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Young and old alike, teacher as well as student, cast lots for their duties.

- 9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십이 명이요

The first lot, which was for Asaph, fell to Joseph, his sons and relatives, 12 the second to Gedaliah, he and his relatives and sons, 12

- 10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third to Zaccur, his sons and relatives, 12

- 11 넷째는 이스리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fourth to Izri, his sons and relatives, 12

- 12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fifth to Nethan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 13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sixth to Bukk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 14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seventh to Jesarelah, his sons and relatives, 12

15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eighth to Jesha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16 아홉째는 맛다냐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ninth to Mattan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17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tenth to Shimei, his sons and relatives, 12

18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eleventh to Azarel, his sons and relatives, 12

19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twelfth to Hashab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20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thirteenth to Shubael, his sons and relatives, 12

21 열넷째는 맛디디야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에요

the fourteenth to Mattith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22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fifteenth to Jerimoth, his sons and relatives, 12

23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sixteenth to Hananiah, his sons and relatives, 12

24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
이요
the seventeenth to Joshbekashah, his sons and relatives, 12

25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eighteenth to Hanani, his sons and relatives, 12

26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nineteenth to Mallothi, his sons and relatives, 12

27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twentieth to Eliathah, his sons and relatives, 12

28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the twenty-first to Hothir, his sons and relatives, 12

29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
이요
the twenty-second to Giddalti, his sons and relatives, 12

30 스물셋째는 마하시웃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
이요
the twenty-third to Mahazioth, his sons and relatives, 12

31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
이었던라
the twenty-fourth to Romamti-Ezer, his sons and relatives, 12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레위인 악사들이 소개됩니다(1~6).

23~24장에 걸쳐서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발하는 과정이 묘사되었습니다. 25장에 들어와서는 레위인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백성을 이끈 악사들이 소개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비단 찬양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일깨우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말합니다(1절). 나아가 악사의 가문을 대표하는 아삽, 여두둔, 헤만이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진술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질서 있게 움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 줍니다(6절). 그런데 아삽과 여두둔, 헤만 중에서도 유독 헤만 집안이 강조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줍니다. 아삽 가문은 4명, 여두둔 집안은 6명인 것에 비해 열네 명의 찬양대장이 선발된 헤만 집안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증언하며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가문을 알립니다(4~5절).

2.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7~31).

본 단락은 레위인 악사들의 후손을 나열하며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아버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면, 그 아들들과 형제는 아버지를 따라 노래를 부른 셈입니다(6~7절). 세대가 연합하여 찬양을 부르고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듯 성경은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의 구별된 없이 모두가 제비를 뽑아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8절). 아마도 그들의 열심이 후대로 이어졌으리라고 추측되는 가운데 본 족보에는 다윗 시대 이후의 인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자는 맡겨 주신 일에 성실히 임한 악사들을 상기시키며 환난과 역경 중에도 귀환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헤만 집안을 가리키며 민족의 앞날을 비추었다고 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가정은 무엇에 기초하여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2.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이서 형제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였기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예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5:1~6 ¹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²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³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⁴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⁵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⁶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므셀레마라

Th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From the Korahites: Meshelemiah son of Kore, one of the sons of Asaph.

- 2 므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라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Meshelemiah had sons: Zechariah the firstborn, Jediahel the second, Zebadiah the third, Jathniel the fourth,

- 3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내이며

Elam the fifth, Jehohanan the sixth and Eliehoenai the seventh,

- 4 오벤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벨과

Obed-Edom also had sons: Shemaiah the firstborn, Jehozabad the second, Joah the third, Sacar the fourth, Nethanel the fifth,

-
- 5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잇사갈과 여덟째 브울래대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Ammiel the sixth, Issachar the seventh and Peullethai the eighth. (For God had blessed Obed-Edom.)

- 6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His son Shemaiah also had sons, who were leaders in their father's family because they were very capable men.

- 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벧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The sons of Shemaiah: Othni, Rephael, Obed and Elzabad; his relatives Elihu and Semakiah were also able men.

- 8 이는 다 오벧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벧에돔에게서 난 자가 육십이 명이며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Obed-Edom; they and their sons and their relatives were capable men with the strength to do the work - descendants of Obed-Edom, 62 in all.

- 9 또 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열여덟 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Meshelemiah had sons and relatives, who were able men - 18 in all.

- 10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Hosah the Merarite had sons: Shimri the first (although he was not the firstborn, his father had appointed him the first),

- 11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Hilkiah the second, Tabaliah the third and Zechariah the fourth, The sons and relatives of Hosah were 13 in all,

- 12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Thes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through their chief men, had duties for ministering in the temple of the LORD, just as their relatives had,

- 13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뽑혔으니

Lots were cast for each gat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young and old alike,

- 14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The lot for the East Gate fell to Shelemiah. Then lots were cast for his son Zechariah, a wise counselor, and the lot for the North Gate fell to him,

15 오벰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The lot for the South Gate fell to Obed-Edom, and the lot for the storehouse fell to his sons,

16 솥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래겿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The lots for the West Gate and the Shalleketh Gate on the upper road fell to Shuppim and Hosah. Guard was alongside of guard:

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There were six Levites a day on the east, four a day on the north, four a day on the south and two at a time at the storehouse.

18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As for the court to the west, there were four at the road and two at the court itself.

19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These were th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who were descendants of Korah and Merari.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성전 문지기들이 등장합니다(1~11).

악사로 활동한 레위 자손 다음으로 ‘성전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에서 출발하여 악사를 거쳐 성전 문지기, 성전 공간을 맡은 자들의 소개는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맡겨진 일이 전문적이든 혹은 평범하든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상으로 지위의 적절한 구분은 있었지만, 구분 자체가 사람을 구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듯 본 단락에는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한 오벰에돔이 거명되며, 그의 집안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벰에돔에게서 난 자가 욱십이 명이며”(8절) 학자들 사이에선 블레셋 출신인 그가 과연 문지기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지만, 오벰에돔의 섬김을 통하여 모두를 구별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은 필요해 보입니다.

2. 성전 문지기가 힘써 지킨 것은(12~19)

문지기의 우두머리로 섬긴 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1~11절). 성경은 그들이 첫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고 말하며 가문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실을 알립니다(12절). 둘째, 문지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감을 따라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한 공동체를 암시합니다(13절). 제비뽑힌 자들은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난 성전 문을 지켰는데 특히나 동쪽 문은 왕의 문이라 일컬어질 만큼 의미를 가진 까닭에 보다 많은 수의 문지기가 보초를 서기도 했습니다(17절). 어쩌면 문지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끌었을 법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성전을 보초하는 문지기의 모습 사이로 정성껏 예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을 지킨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암시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새겨 두신 근원적인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3:1~5 ¹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 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²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³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⁴ 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십니다. ⁵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0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을 맡았으며

Their fellow Levites were in charge of the treasuries of the house of God and the treasuries for the dedicated things.

- 21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The descendants of Ladan, who were Gershonites through Ladan and who were heads of families belonging to Ladan the Gershonite, were Jehieli,

- 22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을 맡았고

the sons of Jehieli, Zetham and his brother Joel. They were in charge of the treasuries of the temple of the LORD.

- 23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웃시엘 자손 중에

From the Amramites, the Izharites, the Hebronites and the Uzzielites:

24 모세의 아들 게르숨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Shubael, a descendant of Gershom son of Moses, wa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treasuries,

25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His relatives through Eliezer: Rehabiah his son, Jeshaiah his son, Joram his son, Zicri his son and Shelomith his son,

26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Shelomith and his relatives were in charge of all the treasuries for the things dedicated by King David, by the heads of families who were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by the other army commanders,

27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Some of the plunder taken in battle they dedicated for the repair of the temple of the LORD,

- 28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And everything dedicated by Samuel the seer and by Saul son of Kish, Abner son of Ner and Joab son of Zeruiah, and all the other dedicated things were in the care of Shelomith and his relatives,

- 29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From the Izharites: Kenaniah and his sons were assigned duties away from the temple, as officials and judges over Israel.

- 30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칠백 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와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From the Hebronites: Hashabiah and his relatives - seventeen hundred able men - were responsible in Israel west of the Jordan for all the work of the LORD and for the king's service.

- 31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는 지 사십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As for the Hebronites, Jeriah was their chief according to the genealogical records of their families. In the fortieth year of David's reign a search was made in the records, and capable men among the Hebronites were found at Jazer in Gilead.

32 그의 형제 중 이천칠백 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Jeriah had twenty-seven hundred relatives, who were able men and heads of families, and King David put them in charge of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for every matter pertaining to God and for the affairs of the king.

26:28

사울과 아브넬은 다윗과 적대 관계의 인물이다. 성경은 그들이 성물을 구별하여 드렸다고 기록하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은 이후 그들의 소유를 대신 드린 것으로 짐작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물을 보호하는 레위인이 세워집니다(20~28).

성전 문지기로 섬긴 레위인 다음으로 본 단락에는 '성전 공간'을 관리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20절에 의하면 공간이라는 장소는 크게 '하나님의 전 공간'과 '성물 공간' 두 곳으로 나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비롯하여 밀가루, 포도주, 기름 같은 물건을 보관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에서도 십일조와 같이 하나님께 바칠 헌물이 주요 보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물 공간이라 불리는 이곳은 왕, 가문의 우두머리,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26절).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전쟁에서 노략하여 얻은 전리품을 구별하여 보관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건축하는 일에 뜻을 모은 열심이 느껴집니다(27절). 결론적으로 두 공간을 지키며 예물을 소중히 보관한 레위 후손의 등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묵상하게 합니다.

2.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29~32).

그동안은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언급되었다면, 이제 '성전 밖'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성전 밖'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를 일컫는데, 요단 강 서쪽과 동쪽을 가리킵니다. 30절은 요단 서쪽에서 관원으로 활동한 천칠백 명의 유능한 사람이 나오고, 32절은 요단 동쪽에서 활동한 이천칠백 명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두 지역의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며 나라의 살림을 맡거나, 공정과 정의로 재판한 행위라는 해석이 따릅니다.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일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안에서 연합한 이스라엘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장려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선행하고 있습니까?
2.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요즘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8~9,12 ⁸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⁹ 주님께서 지으신 못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¹²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6

욥기 21:17~34

토요일

오늘의 찬송 542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말씀 속으로

-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Yet how often is the lamp of the wicked snuffed out? How often does calamity come upon them, the fate God allots in his anger?”

-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How often are they like straw before the wind, like chaff swept away by a gale?

- 19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It is said, ‘God stores up a man’s punishment for his sons.’ Let him repay the man himself, so that he will know it!

-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Let his own eyes see his destruction; let him drink of the wrath of the Almighty.

21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For what does he care about the family he leaves behind when his allotted months come to an end?

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Can anyone teach knowledge to God, since he judges even the highest?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One man dies in full vigor, completely secure and at ease,

24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his body well nourished, his bones rich with marrow.

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Another man dies in bitterness of soul, never having enjoyed anything good.

26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Side by side they lie in the dust, and worms cover them both.

21:24 그릇
히브리어 '몸'

-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I know full well what you are thinking, the schemes by which you would wrong me.

- 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You say, 'Where now is the great man's house, the tents where wicked men lived?'

-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Have you never questioned those who travel? Have you paid no regard to their accounts -

-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that the evil man is spared from the day of calamity, that he is delivered from the day of wrath?

- 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라

Who denounces his conduct to his face? Who repays him for what he has done?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He is carried to the grave, and watch is kept over his tomb.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The soil in the valley is sweet to him; all men follow after him, and a countless throng goes before him.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 일 뿐이니라

So how can you console me with your nonsense? Nothing is left of your answers but falseho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17~26).

1~16절에 걸쳐 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지만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통상적인 관념에 정면으로 맞서며, 이 땅에서 평평거리며 사는 악인의 행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에 들어오면서 욥의 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흥왕하는 악인이어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의의 표시를 하는데,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현실로부터 다시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또한 굳게 신뢰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하는 욥의 모습에 망설임이 없어 보입니다(19~22절). 그럼에도 여전히 탄식의 굴레에 갇힌 처지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땅에서 승승장구하여 평안한 자나, 마음에 고통을 품은 자 모두 흠으로 돌아가는 숙명에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23~26절).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당하는 일이나 의인이 건짐을 받고 사는 일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욥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2. 구원은 하나님께 옵니다(27~34).

욕기서를 묵상하면서 제 울음을 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에게 허락된 시련은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그분의 판결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깨달음을 안겨 줍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새겼을 욥인지라 친구들을 향하여 ‘거짓’을 말한다고 답하는 부분에 동의가 갑니다(34절). 그렇다면 욥이 내는 언어는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경을 거치며 고정된 틀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악인도 잘 살 수 있고, 의인이라고 모두가 형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중에는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쉬울 수 있지만,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도 그러할 수 있는지 성경은 반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원망과 분노, 탄식과 절규의 언어를 내면서도 ‘마침내’ 바로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서서히 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묻지 않고 답을 내리는 교만한 세 친구와 다르게 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을 보이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뜻밖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거짓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1:20~24 ²⁰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²¹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²² 내가 거문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²³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²⁴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글 이순기(부목사)



언젠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쪽 벽에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액자 안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음식이라는 것을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식당 벽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으며 한끼 식사的重要性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이러한 마음으로 손님을 섬기는데, 집에서 함께 밥 먹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하며 집에서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 가족들과 식사한 적이 언제인가 세어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그렇고, 학원 스케줄이 겹치는 날에 함께 밥을 먹기 쉽지 않은 딸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군인이 휴가 나왔을 때,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려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 밥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도, 이 일만큼은 잘 지켜 가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모든 과정을 이미 경험했고 또 통과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지내시는 여러 어른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 2:24)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 5:18)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걷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나의 몫은 이것이다”라고 소리 내어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잘 받아서 좋아해 주면 주는 사람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조그만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상이 모아져서 삶의 아름다움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식탁 교제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머리카락을 세는 것, 공중의 새를 바라보는 것, 들의 꽃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재료들을 취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주님은 무엇보다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저녁마다 한 상에 둘러 앉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소산물을 펼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교회 모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모습이 풍성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17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9/17~23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
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시 85: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1 다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Then Eliphaz the Temanite replied: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Can a man be of benefit to God? Can even a wise man benefit him?

3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What pleasure would it give the Almighty if you were righteous? What would he gain if your ways were blameless?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Is it for your piety that he rebukes you and brings charges against you?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Is not your wickedness great? Are not your sins endless?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You demanded security from your brothers for no reason; you stripped men of their clothing, leaving them naked.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You gave no water to the weary and you withheld food from the hungry,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though you were a powerful man, owning land - an honored man, living on it.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And you sent widows away empty-handed and broke the strength of the fatherless.

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That is why snares are all around you, why sudden peril terrifies you,

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why it is so dark you cannot see, and why a flood of water covers you,

- 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Is not God in the heights of heaven? And see how lofty are the
highest stars!

-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
판하실 수 있으랴

Yet you say, 'What does God know? Does he judge through
such darkness?

- 14 뻥뻥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Thick clouds veil him, so he does not see us as he goes about
in the vaulted heavens.'

- 15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Will you keep to the old path that evil men have trod?

- 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
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They were carried off before their time, their foundations
washed away by a flood.

-
- 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They said to God, 'Leave us alone! What can the Almighty do to us?'

- 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 획은 나에게서 떠나니라

Yet it was he who filled their houses with good things, so I stand aloof from the counsel of the wicked,

-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The righteous see their ruin and rejoice; the innocent mock them, saying,

- 20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Surely our foes are destroyed, and fire devours their wealth,'

-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Submit to God and be at peace with him; in this way prosperity will come to you,

-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을 네 마음에 두라

Accept instruction from his mouth and lay up his words in
your heart.

-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If you return to the Almighty, you will be restored: If you
remove wickedness far from your tent

-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and assign your nuggets to the dust, your gold of Ophir to the
rocks in the ravines,

-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
리니

then the Almighty will be your gold, the choicest silver for you.

-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Surely then you will find delight in the Almighty and will lift
up your face to God.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You will pray to him, and he will hear you, and you will fulfill your vows,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What you decide on will be done, and light will shine on your ways,

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When men are brought low and you say, 'Lift them up!' then he will save the downcast,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He will deliver even one who is not innocent, who will be delivered through the cleanness of your han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1~20).

시간이 흐를수록 욥은 드러난 현상보다 현상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세 친구의 정죄와 비난은 여전합니다. 본 장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며, 욥에게 거리낌없이 냉소와 멸시를 내뿜습니다(2~3절). 이미 그가 처한 현실이 크고도 큰 악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스스로 아닌 척 해 봐야 소용이 있겠느냐는 질책입니다(4~11절).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욥과 다르게 제 주장을 꺾지 못하고 스스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엘리바스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해한 하나님이 또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고백처럼 높은 하늘에 계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며, 돌이키는 자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12절).

2. 하나님은 마음의 출입을 지키십니다(21~30).

욥은 엘리바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는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 믿음조차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돌이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이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고 성토하는 중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을 듯합니다. 이렇듯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마음 하나도 세밀하게 감찰하며 움직여 주시니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 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명령하는 엘리바스의 명령을 기록하며, 돌이키는 자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과연 합당하냐고 질문합니다(21절). 그리고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는 욥을 비추며, 그와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풍요로운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2.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4:23), 하나님이 마음의 출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11~17 ¹¹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¹²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¹³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 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¹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¹⁵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¹⁶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¹⁷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일 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This is the list of the Israelites - heads of families,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ir officers, who served the king in all that concerned the army divisions that were on duty month by month throughout the year. Each division consisted of 24,000 men.

- 2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In charge of the first division, for the first month, was Jashobeam son of Zabdiel.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3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He was a descendant of Perez and chief of all the army officers for the first month.

-
- 4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In charge of the division for the second month was Dodai the Ahohite; Mikloth was the leader of his division.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5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The third army commander, for the third month, was Benaiah son of Jehoiada the priest. He was chief and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6 이 브나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This was the Benaiah who was a mighty man among the Thirty and was over the Thirty. His son Ammizabad was in charge of his division.

- 7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The fourth, for the fourth month, was Asahel the brother of Joab; his son Zebadiah was his successor.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8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The fifth, for the fifth month, was the commander Shamhuth the Izrah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9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

The sixth, for the sixth month, was Ira the son of Ikkesh the Teko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0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

The seventh, for the seventh month, was Helez the Pelonite, an Ephraim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1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브개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

The eighth, for the eighth month, was Sibbecai the Hushathite, a Zerah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2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

The ninth, for the ninth month, was Abiezer the Anathothite, a Benjam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3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

The tenth, for the tenth month, was Maharai the Netophathite, a Zerah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 14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The eleventh, for the eleventh month, was Benaiah the Pirathonite, an Ephraimite.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5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옷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니 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The twelfth, for the twelfth month, was Heldai the Netophathite, from the family of Othniel. There were 24,000 men in his division.

- 16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The officers over the tribes of Israel: over the Reubenites: Eliezer son of Zicri; over the Simeonites: Shephatiah son of Maacah;

- 17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over Levi: Hashabiah son of Kemuel; over Aaron: Zadok;

- 18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잇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프리요

over Judah: Elihu, a brother of David; over Issachar: Omri son of Michael;

- 19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over Zebulun: Ishmaiah son of Obadiah; over Naphtali: Jerimoth son of Azriel;

- 20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over the Ephraimites: Hoshea son of Azaziah; over half the tribe of Manasseh: Joel son of Pedaiah;

- 21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over the half-tribe of Manasseh in Gilead: Iddo son of Zechariah; over Benjamin: Jaasiel son of Abner;

- 22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over Dan: Azarel son of Jeroham, These were the officers over the tribes of Israel.

- 23 이스라엘 사람의 이십 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David did not take the number of the men twenty years old or less, because the LORD had promised to make Israel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Joab son of Zeruiah began to count the men but did not finish,
Wrath came on Israel on account of this numbering, and the
number was not entered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King
Davi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군사적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갑니다(1~15).

26장부터 성경은 성전 중심에서 성전 ‘밖’으로 시야를 확장해 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악사, 성전 문지기, 성전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줄곧 소개해 왔다면, 26장 후반부터는 왕 다윗을 도와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단락은 ‘군대’의 주요 관원들에 집중하는 한편, 이어지는 16~24절은 ‘지파’의 주요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제도가 모습을 갖추며 다윗 왕조가 균형 있게 서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군대의 주요 수장은 상비군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달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임무를 맡곤 하였는데(1절), 뽑힌 수장을 지파별로 분류해 볼 때에 유다 지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2. 다윗은 행정 개편도 유능하게 처리합니다(16~24).

군대의 주요 관원의 명단이 기록된 후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를 시작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를 언급하는 구절은 행정 조직도 유능하게 세운 다윗 왕의 지혜를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23~24절 말씀의 해석이 난해합니다. 두 구절은 첫째, 인구 조사가 다윗이 아닌 요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둘째, 인구 조사가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장과는 그 내용이 역으로 기술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해석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를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다윗이 이십 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만큼 번성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암시해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역대기 저자는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견실한 다윗 왕조를 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2. 23~24절은 해석의 난제가 따르지만 약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내어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9:1~5 ¹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 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²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³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고 하였다.” (셀라) ⁵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5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뻬트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웃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Azmaveth son of Adiel was in charge of the royal storehouses, Jonathan son of Uzziah was in charge of the storehouses in the outlying districts, in the towns, the villages and the watchtowers,

- 26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Ezri son of Kelub was in charge of the field workers who farmed the land,

- 27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Shimei the Ramathite was in charge of the vineyards, Zabdi the Shiphmite was in charge of the produce of the vineyards for the wine vats,

- 28 게텔 사람 바알하난은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Baal-Hanan the Gederite was in charge of the olive and sycamore-fig trees in the western foothills. Joash was in charge of the supplies of olive oil,

-
- 29 사론 사람 시드래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 떼를 맡았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 떼를 맡았고

Shitrai the Sharonite was in charge of the herds grazing in Sharon, Shaphat son of Adlai was in charge of the herds in the valleys,

- 30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놏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맡았으니

Obil the Ishmaelite was in charge of the camels, Jehdeiah the Meronothite was in charge of the donkeys, Jaziz the Hagrite was in charge of the flocks,

- 31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All these were the officials in charge of King David's property,

- 32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Jonathan, David's uncle, was a counselor, a man of insight and a scribe, Jehiel son of Hacmoni took care of the king's sons,

- 33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 되었고

Ahithophel was the king's counselor, Hushai the Arkite was the king's friend,

- 34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Ahithophel was succeeded by Jehoiada son of Benaiah and by Abiathar, Joab was the commander of the royal arm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다윗의 관심사는 백성의 생명입니다(25~31).

성전 중심에서 성전 밖으로 이동한 저자의 시선이 이내 왕의 지근거리로 들어오면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왕을 섬긴 자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왕과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지혜를 갖춘 다윗 왕의 치하 속에서 백성들은 참으로 부요하며 부강하게 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왕의 재산에 속한 것들에 밭, 성읍, 마을, 땅대의 공간은 물론이고 땅의 소출, 짐승의 떼를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 화려한 궁이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귀속품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재산은 백성을 살리는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니 나라의 살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르기도 합니다. 왕과 백성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부요케 하는 땅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스라엘 위에 풍요를 덧입혀 주십니다.

2. 다윗을 가까이에서 모신 인물이 소개됩니다(32~34).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들 다음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긴 자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숙부 요나단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밝히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사로 그리고 서기관으로 다윗을 도왔다고 전합니다(32절). 그에 이어 33절에는 한때 왕의 모사로 섬겼으나 이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그를 도운 인물 ‘후새’는 왕의 벗이라고 칭해집니다. 그 어떤 인정보다도 가치 있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를 높이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요압’은 역대기서에 걸쳐 몇 차례 등장하는데 군대 지휘관으로서 활동하며 다윗 왕조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밖, 나아가 왕 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자들의 소개는 성전 건축 준비에 돌입해 가는 시대적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의 재산으로 기록된 목록을 살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산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며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다.
2. 지혜로운 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듯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간구합니다(22:12). 나와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10~12 ¹⁰ 그러므로 이제, 왕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 들어라. ¹¹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¹²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느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28:1~10

오늘의 찬송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David summoned all the officials of Israel to assemble at Jerusalem: the officers over the tribes, the commanders of the divisions in the service of the king,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 officials in charge of all the property and livestock belonging to the king and his sons, together with the palace officials, the mighty men and all the brave warriors,

- 2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King David rose to his feet and said: "Listen to me, my brothers and my people. I had it in my heart to build a house as a place of rest fo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or the footstool of our God, and I made plans to build it.

- 3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God said to me, 'You are not to build a house for my Name, because you are a warrior and have shed blood.'

-
- 4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Ye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hose me from my whole family to be king over Israel forever. He chose Judah as leader, and from the house of Judah he chose my family, and from my father's sons he was pleased to make me king over all Israel.

- 5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Of all my sons - and the LORD has given me many - he has chosen my son Solomon to sit on the throne of the kingdom of the LORD over Israel.

-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딸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He said to me: 'Solomon your son is the one who will build my house and my courts, for I have chosen him to be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 7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if he is unswerving in carrying out my commands and laws, as is being done at this time.'

- 8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와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So now I charge you in the sight of all Israel and of the assembly of the LORD, and in the hearing of our God: Be careful to follow all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you may possess this good land and pass it on as an inheritance to your descendants forever.

-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for the LORD searches every heart and understands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s.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reject you forever.

- 10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Consider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to build a temple as a sanctuary. Be strong and do the work."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1~7).

역대상의 마지막 두 장인 28,29장은 성전 건축에 최종적인 준비를 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그 과정은 모이는 일에서 시작하여 다윗의 연설을 듣는 행위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으로 왕과 백성이 들어가는 상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28장에 기록된 연설은 이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들려주신 음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으로 결단하는 삶을 요청합니다. 마냥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명령이라기보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새길 것을 요청한 권면이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집,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함을 갖추게 된 그가 이제는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갑니다. 이렇듯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영광스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삶입니다.

2.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8~10)

다윗에게 성전은 그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는 실재를 표현합니다. 즉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전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음의 사실을 가르치고자 힘씁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9절)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위엄 있는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찾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서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시작되고 완공되는 일, 그 이전에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살며시 깨우쳐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다윗은 솔로몬을 택하신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복한 다윗의 믿음을 보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시련이 닥치는지 다윗은 여러 번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5:4~7 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⁵ 주님께 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⁶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⁷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Then David gave his son Solomon the plans for the portico of the temple, its buildings, its storerooms, its upper parts, its inner rooms and the place of atonement.

- 12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He gave him the plans of all that the Spirit had put in his mind for the court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all the surrounding rooms, for the treasuries of the temple of God and for the treasuries for the dedicated things.

- 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He gave him instructions for the divisions of the priests and Levites, and for all the work of serving in the temple of the LORD, as well as for all the articles to be used in its service.

- 14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He designated the weight of gold for all the gold articles to be used in various kinds of service, and the weight of silver for all the silver articles to be used in various kinds of service:

-
- 15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the weight of gold for the gold lampstands and their lamps, with the weight for each lampstand and its lamps; and the weight of silver for each silver lampstand and its lamps, according to the use of each lampstand;

- 16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the weight of gold for each table for consecrated bread; the weight of silver for the silver tables;

- 17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the weight of pure gold for the forks, sprinkling bowls and pitchers; the weight of gold for each gold dish; the weight of silver for each silver dish;

- 18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and the weight of the refined gold for the altar of incense. He also gave him the plan for the chariot, that is, the cherubim of gold that spread their wings and shelte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 19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All this," David said, "I have in writing from the hand of the LORD upon me, and he gave me understanding in all the details of the plan."

- 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David also said to Solomon his son,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do the work.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for the LORD God, my God, is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until all the work for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is finished.

- 21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The divisions of the priests and Levites are ready for all the work on the temple of God, and every willing man skilled in any craft will help you in all the work.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will obey your every comm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백성을 이룹니다(11~19).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당부하는 다윗의 부탁이 있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완공될 성전의 설계도가 하나씩 열어 보여집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즉 미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던 다윗에게 그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12절). 그날에 성령께서 얼마나 깊이 운행하셨는지 다윗의 영안이 열려 성전의 구조뿐만 아니라 예배에 사용될 그릇, 도구 하나까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속죄소’의 설계도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치러할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몸소 배운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속죄소의 자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전하며, 솔로몬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 줍니다.

2. 생명의 길에는 기쁨이 따릅니다(20~21).

다윗과 그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이끌었는가 하면, 그와 솔로몬을 이어 주는 핵심적인 끈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며 담대하게 믿고 따르기를 부탁드립니다(20절). 그리고는 그가 솔로몬을 응원하듯이 아들 곁에서 기쁨으로 함께 도와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주셨으니 그저 믿고 나아가기를 격려합니다(21절).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처럼 남긴 다윗의 말에 백성들도 차츰 눈이 열리고, 그들이 섬기는 분이 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겼을 법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결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다르게 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며 앞길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여호와와 자비하심을 붙드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며 겸손히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2. 다윗의 격려에는 두려워말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함께합니다. 두려움과 기쁨,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대조시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0:1~5 ¹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²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³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⁵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Even today my complaint is bitter; his hand is heavy in spite of my groaning.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If only I knew where to find him; if only I could go to his dwelling!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I would state my case before him and fill my mouth with arguments,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I would find out what he would answer me, and consider what he would say.

-
-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
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Would he oppose me with great power? No, he would not
press charges against me.

-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
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There an upright man could present his case before him, and I
would be delivered forever from my judge.

-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But if I go to the east, he is not there; if I go to the west, I do
not find him.

-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When he is at work in the north, I do not see him; when he
turns to the south, I catch no glimpse of him.

-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My feet have closely followed his steps; I have kept to his way without turning aside.

-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I have not departed from the commands of his lips; I have treasured the words of his mouth more than my daily bread.

-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But he stands alone, and who can oppose him? He does whatever he pleases.

-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He carries out his decree against me, and many such plans he still has in store.

-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That is why I am terrified before him; when I think of all this, I fear him.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God has made my heart faint; the Almighty has terrified me.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Yet I am not silenced by the darkness, by the thick darkness
that covers my fa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1~9).

하나님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엘리바스에게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고를 엿보게 됩니다(22:1~30). 사실상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고인 만큼 그들은 계속해서 욥의 죄를 밝히며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망하는가 하면 악인이 흥하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겼다가도 한순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둘러싼 비난 중에도 결백함을 인정하는 일에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그분이 필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믿음이 함께한 것입니다(6절). 바로 그날을 인내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자신 안에 솟아오르는 반항과 근심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2절). 마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감한 자의 편에서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욥이 아름답습니다.

2. 고난이 욥을 만들어 갑니다(10~17).

뜻밖의 고난에 죽음을 외치며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욥의 탄식이 서서히 ‘기다림’을 품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하며 정죄하는 일에 급급했다면, 욥은 고난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무엇’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고백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10절)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 자체 즉 우리의 ‘존재’를 맞이하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뒤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리라고 말하지 않고, 순금처럼 변화될 ‘자신’에게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욥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법합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순물이 따르기도 하지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울 뿐입니다(13~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까?
2. 성경은 욥의 고백처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을 증언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10~13 ¹⁰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입니다. ¹¹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¹²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¹³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대전제일장로교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13번길 34

1904년 세워진 대전역과 경부선 철도 공사가 시작되고 1907년 이후 여러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1938년 대전에서 장로교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제일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외국 선교사로 인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청주제일교회에서 대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회가 조직되었고, 1938년 8월 5일 대전주 영정 1정목(현 정동37번지)소재 양철가옥 1동에 교회당을 세우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45년 12월 해방과 동시에 현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그 후 여러 번의 증축과 신축을 거쳐 1998년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 대전제일교회 홈페이지(www.christ4u.or.kr) 참고 -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들뱅이 www.honggoon.net



2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9/24~30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시 145:5)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 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Why does the Almighty not set times for judgment? Why must those who know him look in vain for such days?"

-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Men move boundary stones; they pasture flocks they have stolen.

- 3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They drive away the orphan's donkey and take the widow's ox in pledge.

-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They thrust the needy from the path and force all the poor of the land into hiding.

-
- 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Like wild donkeys in the desert, the poor go about their labor of foraging food; the wasteland provides food for their children,

- 6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They gather fodder in the fields and glean in the vineyards of the wicked,

-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Lacking clothes, they spend the night naked; they have nothing to cover themselves in the cold,

- 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They are drenched by mountain rains and hug the rocks for lack of shelter,

-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으므로

The fatherless child is snatched from the breast; the infant of the poor is seized for a debt,

- 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Lacking clothes, they go about naked; they carry the sheaves, but still go hungry.

- 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They crush olives among the terraces; they tread the winepresses, yet suffer thirst.

- 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The groans of the dying rise from the city, and the souls of the wounded cry out for help. But God charges no one with wrongdoing.

-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There are those who rebel against the light, who do not know its ways or stay in its paths.

-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When daylight is gone, the murderer rises up and kills the poor and needy; in the night he steals forth like a thief.

-
-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The eye of the adulterer watches for dusk; he thinks, 'No eye will see me,' and he keeps his face concealed.

- 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In the dark, men break into houses, but by day they shut themselves in;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the light.

- 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들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For all of them, deep darkness is their morning; they make friends with the terrors of darkness.

-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Yet they are foam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ir portion of the land is cursed, so that no one goes to the vineyards.

-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As heat and drought snatch away the melted snow, so the grave snatches away those who have sinned.

- 20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The womb forgets them, the worm feasts on them; evil men are no longer remembered but are broken like a tree.

- 21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They prey on the barren and childless woman, and to the widow show no kindness.

- 22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But God drags away the mighty by his power; though they become established, they have no assurance of life.

- 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He may let them rest in a feeling of security, but his eyes are on their ways.

- 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For a little while they are exalted, and then they are gone; they are brought low and gathered up like all others; they are cut off like heads of grain.

25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라

If this is not so, who can prove me false and reduce my words
to noth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인생은 불가사의합니다(1~12).

21장에서 욥은 이 땅에서 악인이 얼마나 평평거리며 사는지를 논하였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 자손들이 번영하고, 기르는 가축이 새끼에 새끼를 낳는 축복이 의인만의 것은 아니라는 셈입니다. 여기에는 악인은 필히 망한다는 법칙을 확신하고 나서는 세 친구를 향하여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고 깨우치는 의도가 함께합니다. 이곳 24장에 들어와서는 악인이 잘 사는 동안에 이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약자들이 등장합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타인의 땅을 집어삼키려는 이들 때문에 약한 이웃은 제 양을 빼앗기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받으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약자는 스스로 숨은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악인의 횡포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어려운 자를 극한 사경으로 내몰지만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지극히도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욥이 품은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고난의 문제를 두고 쉬이 답을 얻지 못하는 욥입니다.

2.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13~25)

그러나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악인의 행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때’에 이르러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 욥은 악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23~24절). 그럼에도 ‘잠깐’ 동안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이유는 어둠을 틈타기를 즐겨 하는 악인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참된 광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16~17절). 그렇지 못하면 모두에게 희망이요, 생명의 시간이 되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처럼 느껴지고, 역으로 어둠이 자욱한 밤을 즐기는 소행이 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맞이하게 될 행로를 말하는 중에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선언이 들려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25절) 그러니까 악인이 설령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놓은 채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전합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각오가 그에게 떠오르는 광명을 보게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은 욥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영광을 희망합니까? 그 일을 위하여 때를 기다리며 구합니다.
2. 욥의 선언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자라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58~60,66 ⁵⁸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⁵⁹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 갑니다. ⁶⁰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⁶⁶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Then King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My son Solomon, the one whom God has chosen, is young and inexperienced. The task is great, because this palatial structure is not for man but for the LORD God.

- 2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With all my resources I have provided for the temple of my God - gold for the gold work, silver for the silver, bronze for the bronze, iron for the iron and wood for the wood, as well as onyx for the settings, turquoise, stones of various colors, and all kinds of fine stone and marble - all of these in large quantities.

- 3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Besides, in my devotion to the temple of my God I now give my personal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for the temple of my God, over and above everything I have provided for this holy temple:

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three thousand talents of gold (gold of Ophir) and seven thousand talents of refined silver, for the overlaying of the walls of the buildings,

5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for the gold work and the silver work, and for all the work to be done by the craftsmen. Now, who is willing to consecrate himself today to the LORD?"

6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Then the leaders of families, the officers of the tribes of Israel,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king's work gave willingly.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They gave toward the work on the temple of God five thousand talents and ten thousand darics of gold, ten thousand talents of silver, eighteen thousand talents of bronze and a hundred thousand talents of iron.

29:7 다릭

페르시아 제국의 화폐 단위이다. 역대기 저자는 당시에 통용된 화폐 단위로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진 예물의 가치를 환산함으로써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보인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 8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공간에 드렸더라

Any who had precious stones gave them to the treasury of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custody of Jehiel the Gershonite.

- 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The people rejoiced at the willing response of their leaders, for they had given freely and wholeheartedly to the LORD. David the king also rejoiced greatl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따릅니다(1~5).

28장은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지도자를 향하는 다윗의 연설이 주를 이룬다면, 29장에는 ‘온 회중’을 청중 삼아 연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지위 여부를 떠나 모두가 성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지난 밤이 지나고(17장), 다윗은 자신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했을 듯합니다. 이에 그가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고 고백하며 사유한 금과 은마지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놓는다고 전합니다(3절). 그러니 백성들도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일종의 회유와 권면이 따르기도 합니다(5절).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곤 하시는데 성경은 선택받은 다윗을 묘사하며 그가 성전을 ‘사모하였다’고 말합니다(3절).

2.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6~9).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윗이 질문하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모습이 오버랩되며,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에 이어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게 합니다(출 35:20-29). 이때에 역대기 저자는 귀환 공동체 시대에 통용된 화폐를 기준으로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은 예물의 값어치를 환산하여 기록합니다(7절). 이로써 성전을 짓는 일에 왕과 백성이 얼마나 하나되어 진심을 다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일깨워 줍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값어치 이전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반드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2.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묘사하며 ‘즐거움’,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9:34~36 ³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³⁵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 서, 그 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³⁶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David prai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whole assembly, saying, "Praise be to you, O LORD, God of our father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심이니이다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Yours, O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Now, our Go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But who am I, and who are my people, that we should be able to give as generously as this? Everything comes from you, and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1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We are aliens and strangers in your sight, as were all our forefathers. Our days on earth are like a shadow, without hope.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O LORD our God, as for all this abundance that we have provided for building you a temple for your Holy Name, it comes from your hand, and all of it belongs to you.

- 17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I know, my God, that you test the heart and are pleased with integrity. All these things have I given willingly and with honest intent. And now I have seen with joy how willingly your people who are here have given to you.

- 18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O LORD, God of our fathers Abraham, Isaac and Israel, keep this desire in the hearts of your people forever, and keep their hearts loyal to you.

-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And give my son Solomon the wholehearted devotion to keep your commands, requirements and decrees and to do everything to build the palatial structure for which I have provid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모든 것이 여호와와의 것입니다(10~16).

지도자와 백성을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이끌며 마음을 연합시킨 다윗이 이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10절) 10절에서 16절로 이어지는 기도 안에는 유독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며 백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그들을 위하는 왕의 마음을 읽게 합니다.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는 다윗의 기도는 내용조차도 은혜롭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주시고,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깨닫고 드린 다윗의 기도는 예물을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드린 예물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표합니다(16절). 높고 낮음, 부와 존귀,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백성이 드릴 것이라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는 삶입니다(12~13절).

2. 정직한 자의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17~19).

회중 앞에서, 회중을 끌어안으며 올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17절) 실존적인 고백이 담긴 다윗의 기도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을 통치자의 자리에서 배우고 터득해 간 만큼 솔로몬을 향한 기도에도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보입니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19절) ‘정성된 마음’, 무엇에든지 주를 진실하게 섬기고 위하는 순종이 아들의 삶 가운데도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은혜로 말마암는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2. 다윗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순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와 가정,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27~29 ²⁷ 주님은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²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²⁹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Then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Praise the LORD your God." So they all praised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y bowed low and fell prostrate before the LORD and the king.

- 21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오 숫양이 천 마리오 어린 양이 천 마리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The next day they made sacrifices to the LORD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to him: a thousand bulls, a thousand rams and a thousand male lambs, together with their drink offerings, and other sacrifices in abundance for all Israel.

- 22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They ate and drank with great jo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day. Then they acknowledged Solomon son of David as king a second time, anointing him before the LORD to be ruler and Zadok to be priest.

-
- 23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행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the LORD as king in place of
his father David. He prospered and all Israel obeyed him.

- 24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All the officers and mighty men, as well as all of King David's
sons, pledged their submission to King Solomon.

- 25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
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The LORD highly exalted Solomon in the sight of all Israel and
bestowed on him royal splendor such as no king over Israel
ever had befo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집니다(20~22上).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이 솔로몬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잘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인 무리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너희’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라고 명합니다(20절).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이 영원하니, 솔로몬과 백성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여호와 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새겨 주고자 다윗이 제사드릴 준비를 갖춥니다(21절). 그날에 번제물로 바친 제물에는 수송아지가 천 마리, 숫양이 천 마리, 어린 양이 천 마리일 만큼 풍성했습니다(21절). 삶을 온전하게 내어 드리며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결단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드린 제물을 먹고 마신 자리를 가리켜 ‘여호와 앞’이었다고 증언합니다(22上).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해 올린 이스라엘의 산 제사였던 것입니다.

2. 형통의 비결이 알려집니다(22下~25).

역대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사실이 다시금 알려집니다(22下). 23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기록에 이어서 즉위 소식을 반복해서 알리는 흐름은 솔로몬이 완벽한 인간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23절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라는 표현을 기록하며, 솔로몬 시대에 왕과 백성이 형통한 배후에 다윗과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다윗 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배웠을 솔로몬을 암시하는 듯, 모든 방백과 용사와 솔로몬의 형제들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복종’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24절). 아버지 다윗의 때에는 피를 많이 흘렸으나 자신의 시대에는 평화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릴 줄 안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 앞에서 ‘심히’ 높임을 받게 하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뛰어남’을 얻게 합니다(2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풍성한 제물과 함께 드린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보여 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2.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한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시대에 약속된 형통을 이끌어 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2:4~5,12~15 ⁴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뻐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⁵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큼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¹²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¹³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¹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¹⁵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음임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29:26~30

오늘의 찬송 505 온 세상 위하여

 말씀 속으로

26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David son of Jesse was king over all Israel.

27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더라

He ruled over Israel forty years - seven in Hebron and thirty-three in Jerusalem.

28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He died at a good old age, having enjoyed long life, wealth and honor. His son Solomon succeeded him as king.

29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
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As for the events of King David'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they are written in the records of Samuel the seer, the records of Nathan the prophet and the records of Gad the seer,

30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together with the details of his reign and power, and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ed him and Israel and the
kingdoms of all the other lan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26~28).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는 다윗의 권면이 따른 후, 역대기서는 다윗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며 마무리됩니다. 특히 다윗의 주요 통치 기반이 된 두 성읍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언급되며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앙받을 만큼 명성과 위력이 높았던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다윗과 그의 치하 속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얻고 누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가문을 택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가 장수하여 늙을 때까지 부와 명예를 얻게 하시며 백성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에 환히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시대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어 귀환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정성된 마음을 가진 백성을 찾고 모으십니다.

2. 하나님은 소망을 품은 자를 사용하십니다(29~30).

막막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선 귀환 공동체에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들려주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성전과 함께 기쁨을 취한 때는 솔로몬의 시대였고, 정작 아버지 다윗의 통치 기간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역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성심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헌신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흘러내려간 축복이 귀환 공동체 사이로 흘러가며,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래가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며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성심을 다하는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윗이 묘사되며 역대기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지 기록해 봅시다.
2. 산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나와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역대기상 묵상을 마무리하며 소망 잃은 마음,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2:25~28 ²⁵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²⁶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²⁷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²⁸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Bildad the Shuhite replied: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
시느니라

“Dominion and awe belong to God; he establishes order in the heights of heaven,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Can his forces be numbered? Upon whom does his light not rise?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How then can a man be righteous before God? How can one born of woman be pure?

-
-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If even the moon is not bright and the stars are not pure in his eyes,

-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how much less man, who is but a maggot - a son of man, who is only a worm!"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How you have helped the powerless! How you have saved the arm that is feeble!

-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What advice you have offered to one without wisdom! And what great insight you have displayed!

-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Who has helped you utter these words? And whose spirit spoke from your mouth?

-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The dead are in deep anguish, those beneath the waters and all that live in them,

-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Death is naked before God; Destruction lies uncovered,

-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 8 물을 뻘뻘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He wraps up the waters in his clouds, yet the clouds do not burst under their weight.

- 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He covers the face of the full moon, spreading his clouds over it.

-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He marks out the horizon on the face of the waters for a boundary between light and darkness.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The pillars of the heavens quake, aghast at his rebuke.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By his power he churned up the sea; by his wisdom he cut Rahab to pieces.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By his breath the skies became fair; his hand pierced the gliding serpent.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And these are but the outer fringe of his works; how faint the whisper we hear of him! Who then can understand the thunder of his pow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경은 겸손을 가장한 말을 주의시킵니다(25:1~4).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있고 나서 빌닷의 세 번째 말이 이어집니다. 6절밖에 채 되지 않은 길이가 놀랄 만하다가도 짧은 구절 안에 지쳐 버린 빌닷의 마음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늘어놓아봤자 좀처럼 듣지 않는 욱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빌닷의 말이 짧게 기록된 25장은 언뜻 보기에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논하는 모습에 선포 동의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빌닷의 언어는 교만한 저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듯하지만 그저 시늉일 뿐, 그가 친구를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욱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빌닷을 보면서 겸손을 가장한 언어가 얼마나 해로운 도구가 되는지 생생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2.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26:1~14).

전능자의 크심을 깨우치는 것 같지만 본심은 친구를 정죄하려는 빌닷의 말을 듣고, 욱이 응수에 나섭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 쯤이야 그도 이미 안다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줄줄이 답합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오라기 같은 점 하나도 감춰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욱은 ‘네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하고 질책하는 빌닷을 향하여 대꾸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14절) 표면적으로는 빌닷의 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나 욱의 언어는 실존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며,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욱의 모습 속에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25장은 믿음을 가장한 위선적인 인간을 묘사합니다. 진실하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가식과 교만, 위선과 거짓이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고난의 경험이 빌닷과 욱의 말을 결정적으로 구분 짓습니다. 고난이 말, 생각,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욱기서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7:3~8 ³ 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⁴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⁵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⁶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⁷ 바른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⁸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는
참으로 큰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알차게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가정, 일터, 학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궁핍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느끼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과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8. 4(금) 새벽기도회 중에서

<레 미제라블>을 통해 본 기독교적 사랑의 의미

글 황영미 (집사)



사랑은 헌신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39~42)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성경의 유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로 승화된 작품이 잘 알려져 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다.

원작과 영화 <레 미제라블>

특이하게 우리나라 관객이 많았던 영화들이 있다. 2012년 개봉한 톰 후퍼 감독의 송스루^{song through} 버전 <레 미제라블>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6백만 가까운 관객이 관람했다. 휴 잭맨 주연, 리셀 크로우가 자베르로 나온 이 영화는 OST의 대유행과 더불어 ‘레 밀리터리블’ 같은 웹패러디까지 유행되며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상당히 친근한 영화라 할 수 있다.

<레 미제라블>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다. 1925년부터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까이 접한 프랑스 영화로는 1957년 장 가방 주연, 1995년 장 폴 벨몽드 주연 영화이며, 1998년 제작된 빌 오거스트 연출의 할리우드 영화는 리암 니슨이 장발장, 제프리 러시가 자베르, 우마 서먼이 팡틴, 클레어 데인즈가 코제트 역을 맡으며 연기가 뛰어나고 원작을 잘 살린 영화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려 스무 차례가 넘게 영화화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은 1861년 초판이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레 미제라블』은 어렸을 때부터 장발장 이야기로 세계문학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뮤지컬이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보면서 원작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다시 읽게 된다.

뮤지컬은 1980년 파리에서 최초로 공연된 후,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뮤지컬 ‘캣츠’의 기록을 깨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되었다고 한다. 예술의 전당에서 한 내한 공연 뮤지컬의 강한 인상은 원작을 넘어서진 진한 감동으로 남는다. 특히 큰 배를 무대 배경으로 한 무대 장치가 인상 깊었고, 코제트의 가녀린 몸매에서 빛어내는 코제트의 노래 <구름의 성^{castle of cloud}>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입가에 계속 맴돌기도 했다.



프랑스하면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가 탄생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빅토르 위고는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던 때인 1830년 일어난 7월 혁명을 직접 겪었고, 이 경험이 <노트르담 드 파리>, <레 미제라블>에 담겨 있다. 이후 1845년부터 쓰기 시작한 <레 미제라블>은 어린이의 학대 금지, 성차별, 혁명 등을 주제로 담으면서 장 발장, 코제트, 팡틴, 마리우스, 자베르 등 인물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치 사상을 담았지만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왕정 복고로 그와 대립했던 공화정 지지자 위고

는 영불해협 가운데의 저지섬 옆 조그만 게르느제 섬으로 망명을 떠났다. 이후 그는 그곳에서 19년간 망명 생활을 하고서야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망명 중인 1860년에 <레 미제라블> 집필을 다시 시작하여 다음 해 완성하였고, 1961년 초판본이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1832년 6월 혁명인 바리케이드의 날을 그리고 있다.

위고는 장 발장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민중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를 비롯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사유로 재현했다. 장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흔히 있는 이름이며, 1806년 감옥에서 출감한 피에르 모렐이 빵 하나를 훔치고 5년 동안 수행된 것을 극적으로 소설화하였다고 한다.

이 작품의 미리엘 주교는 여러 버전의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는 대부분 전반부에 잠깐 등장하지만, 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분량도 많이 서술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미리엘 주교가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소설의 도입부에서는 미리엘 주교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당시 종교계도 부도덕하거나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종교인이 있다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여 준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미리엘 주교 같은 삶을 사는 종교인이 있었다. 미울리스 신부의 동생인 미울리스 장군과 친구 사이인 빅토르 위고는, 그에게서 형인 미울리스 신부의 이야기들 듣고 미리엘 주교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한다. 장발장을 개과천신하게 만든 미리엘 주교의 실제 인물 격인 미울리

스 신부가 근무했던 남프랑스 산골마을 디뉴의 생 제롬 성당에 찾아가면 성당 안에 묻힌 미올리스 신부의 무덤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소설은 미리엘 주교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대신, 아이러니컬한 기법으로 서술한다. 미리엘 주교의 동생의 시선으로 미리엘 주교를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점이 특징적이고 재미있다. 표현을 할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괜찮아?”하는 식의 능청스러운 기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청빈한 삶을 사는 미리엘 주교의 모습이 미리엘 주교의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산서에 마차 값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다면서 불평한다. 사실 이는 불평이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오빠에 대한 칭찬이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주교관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고 정작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병원 건물 구석에 가서 사는 등, 미리엘 주교의 모습을 홍보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를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캐릭터는 다른 인물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방문을 반겨 주고, 그가 은쟁반을 훔쳐간 범 죄를 저지른 뒤에 오히려 은췌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냐고 되묻는다. 그의 모습이 결국 장발장에게 영향을 주며 그를 변화시킨다. 미리엘 주교에 대한 도입부의 자세한 설명은 이후 장발장이 자베르를 용서하는 것과 맞물리게 된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시장이 되고,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도 한다. 『레 미제라블』의 핵심은 장발장이 점점 미리엘 주교같이 변화하는, 즉 숭고해지는 내용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실천, 특히 자신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실천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레 미제라블>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부산영화의 전당 오디오해설영화관 '레 미제라블'에 대한 필자의 비평

(<https://www.dureraum.org/bcc/board/view.do?rbsidx=327&idx=114>)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뜨거운 우리의 여름

글 대학부



나의 리즈 시절 대학부, 현재 진행형

글 김원석 (장로)

‘리즈 시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 FC’와 ‘시절’이 합쳐진 신조어로, 과거의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만큼 화려하지 않을 때 사용되곤 하며, 그렇기에 때로는 회고와 자성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부 부장 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부 부감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장로로 임명되었고, 올해에는 대학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저의 신앙 여정 중 소망교회 교육 부서에서의 시간은, 대기업으로 따지면 발탁 승진과 고숙 승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교사대학 36기로 수료를 했으니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수습 사원이 임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교사대학을 수료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학교 문턱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처럼 사역교사라는 타이틀의 봉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학교 내 인맥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 하지만 노력과 헌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학교 봉사를 해 보신 분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제가 그저 순종하며 걸어온 것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불공평해 보이는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냥 내 맘이다, 그러니 너는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리즈 시절에 대해 말하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망대학부 89학번으로 대학부에 들어왔을 당시에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수련회는 저에게 큰 시련이었으나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초기의 신앙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대학부 초

받은 리즈 시절이 아닌 신앙 암흑기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하지만 30년이 지나 대학부 부장 장로로 섬기는 지금이야말로 제 ‘리즈 시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제 삶의 경로가 이끌려 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소망교회 대학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2023년 대학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선교를 다녀오며

글 홍선표 (집사)

7월 13~15일, 2023년 대학부 여름 국내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금서지리산교회였습니다. 주제 말씀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 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19명의 대학부 부원들은 3개 사역팀(벽화팀, 전도팀, 공연팀)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단으로 나뉘어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 저희 팀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대학부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금서지리산교회 단톡방을 통해서도 말씀 묵상을 함께하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쌓아갔습니다. 공연팀은 짬짬이 시간을 내어 공연을 연습했습니다.

이번 사역에서 가장 신경이 쓰인 사역은 벽화 그리기였습니다. 벽화를 담장에 그리지 않고 컨테이너에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장에 그리는 벽화는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컨테이너에 그리는 벽화는 해 본 적도 없고, 녹이 쓴 상태에 따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답사 때 찍어온 컨테이너의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컨테이너는 녹이 심하게 슬어있었고, 단순히 사포 sand paper 질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인더라는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벗겨 내고, 방청 도료를 칠해야 그 위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역 기간 중에 비가 오면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심하다가 그 지역의 전문가에게 외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목사님을 통해 현지 지역 업체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7월 13일 출발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본당 앞에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8시에 출발을 하여 중간에 덕유산 휴게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금서지리산교회에 도착하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여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 비가 그쳐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벽화팀은 페인트를 섞어서 색을 조합하고, 그림 그릴 위치를 선정하고, 은하수 컨셉의 페인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작업으로 칠해 놓은 방청 페인트 색깔이 짙어서 어떻게 매치시키나 했는데, 은하수 컨셉이라 배경색이 짙어서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화팀이 준비한 페인트도 수성이라서 매치가 잘 되었습니다. 수세미를 이용하여 질감 표현을 하고, 붓으로 별들을 그렸습니다. 성경 구절은 스텐실 기법으로 준비된 레터링을 붙여서 작업하였습니다. 약초팀은 교인이신 김철수 집사님 약초밭으로 가서 빨강게 익은 구기자 열매를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당에 모여 경건회 및 기도회를 가지면서 첫 날 일정을 마칩니다.

목상으로 둘째 달을 시작하며, 오전에는 7곳의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트로트 공연을 했는데, 어찌나 맛깔나게 공연을 하는지 어르신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 후에 마스크 팩을 붙여 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린 후에 준비해 간 그림 책자를 활용하여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구기자/도라지/산초 수확 팀과 잡초 뽑기팀으로 나뉘어 사역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후에 피드백 나눔과 기도회를 하고 밤을 세워 가며 덩 토킹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이 밝자 예배당에 삼삼오오 모여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개조가 방문 전도를 한 후에 교회로 모여 닫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역은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대학부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땀 흘리며 울고 웃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지리산 자락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이 낸 고백 2



너무도 간절히 원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껏 목사님이 작년 가을부터 기도로 준비한 성지 순례 일정이 단체 카톡방에 공지되었다(2월 6일).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튀르키예 동남부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믿음으로 복된 순례자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을 따라 6월 27일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떠났다.

성지 순례의 장점은 성경 속 활자가 과거에서 현재로, 평면에서 입체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전쟁과 지진으로 터만 남은 곳이 많아 아쉬웠지만 초대 교회의 뜨거웠던 신앙과 바울의 전도 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해가 정수리에 내리쬘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박해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있다. 카파도키아의 지하 도시 데린쿠유에서 박해를 피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켰던 현장을 보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을 반성했다.

왜 라오디게아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책망을 들었는지 히에라볼리(파묵칼레)에서 내려오는 온천물과 콜로새의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이 섞이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고,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우며 금광으로 번성한 사테에게 책망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마리아와 함께 살다 세상을 떠난 요한의 에베소 무덤과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는 감동을 넘어 전율이 일었다.

우리는 복된 순례자였다. 매일 아침 버스에 타자마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해 그날 방문하는 순례지와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고 옆에 앉은 사람과 느낌을 나누는 경건의 시간은, 성지 순례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카파도키아 열기구를 타고 선명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고 주님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얼굴도 해처럼 빛났다. 이 동하는 긴 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시간과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은 서로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어 느새 가까워져 식탁마다 웃음 소리가 넘쳤다.**

복된 순례자들은 버스 안에 감도는 훈훈한 성령의 기운 속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개양귀비, 접시꽃과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해바라기, 올리브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매 순간 다른 색으로 빛나던 에게 해와 이오니아 해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으리라. 주님의 은혜



로 여기까지 온 자나온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결단도 했을 것이다.

속세와 떠난 수도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명상과 기도, 최소한의 음식으로 절

제하며 수행했던 지상 2,000미터 높이 바위 위에 지은 메테오라 공중수도원은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돌아 지상으로 내려오며 우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찬송을 불렀다. 그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겠다는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간다. '나라는 사람이 성지 순례 전과 후가 다르기를 기도한다.

성지 순례 다녀와 꿈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입술 꼬리가 올라가 내 얼굴은 미소를 띠는 웃는 얼굴이 되었다. 주일 예배 때 성가대석에 앉은 복된 순례자들의 얼굴이 눈에 크게 들어왔다. **주님이 맺어 주신 인연, 참 고맙다.**

글 이혜영 (집사)

지구 알림장에서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순례 홍보를 보았다. 소망교회 권사님들만 성지 순례를 가는 줄 알았던 집사에게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알림이 아닐 수 없었다. 부족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길을 따라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다니. 퇴직을 앞둔 우리 부부는 주님의 메시지를 갈망하는 터라 어느 천사 같은 집사님의 권유로 뒤도 안 보고 간다고 결정해 버렸다.

'귀한 성지 순례를 가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시간은 없고 마음이 급해진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읽어 주는 성경이었고 이왕이면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의 낭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일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중에 남편이 준비한 찬양곡 CD가 배달되었다. 여행 이틀 전 할 일도 많았지만 나는 찬양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온종일 찬양을 들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나를 종일 울리셨다. 성령으로

마음을 비우시며, 성령으로 나를 채우셨다. '대학교수로 평생을 가르치며 리더로서의 삶에 자부심이 뽐뽐한 나에게 너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격 없는 날 주의 자녀라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11년 이상을 육지로, 해상으로 다니신 길을 우리는 11일 만에 비행기로, 고급 리무진으로 초고속으로 다녔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두 방문했다.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을 받은 사건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나의 시간을 회상했다. 남편과 대학교 1학년에 만나 결혼했지만 믿음 없는 남편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시작하건만 나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맘 상했던 일, 토닥거리며 상한 맘을 가졌던 일, 그래도 친구이자 남편인 이 집사를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일, 아이를 키우며 공부라는 우상에 치중했던 일,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회개했던 일, 믿음 없는 집안에 시집가서 믿음으로 시집살이를 인내했던 일, 뜨뜻미지근한 섬김으로 사는 나의 모습 등등...

나에게 성지 순례는 이천 년의 역사와 말씀이 내 발과 마음과 영과 함께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포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은 이제껏 목사님이셨다. 오래전부터 성지 순례를 기획하시며 2,3차례 모임을 통해 준비시키셨다. 성지 순례를 시작하는 날부터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나눔을 하도록 안내하셨고,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매일의 일과를 마무리해 주셨다. 감탄할 일이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기 다른 모습의 이복순(이재점 목사님과 함께하는 복스러운 순례길) 회원님들도 점점 복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왜일까?

우리 부부는 지금 물같이로 몸을 비우는 중이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함께한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은 매끼 저녁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데 얼굴에서 광택이 난다. 나는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맘같이, 물같이, 영같이로 육신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생각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을 보내셨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슥 3:17)'

성지 순례를 가기 전에 권사 추천을 하시겠다는 어느 장로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보류했던 나는 용기를 냈다. '권사 추천해 주세요!'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누가복음 5장

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⁵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⁶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¹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90 X 65cm
Oil on canvas
2013



현화이야기 20

9월, 우리의 고백



8월 6일 주일

글 황주은 (권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더위에 지친 소망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주님 전에 헌화를 드립니다.



8월 13일 주일

글 임한숙 (권사)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
곧 태극기 아래 하나될
이 땅을 축복하며,
78년 전 해방의 기쁨을 기억해 봅니다.



8월 20일 주일

글 박미아 (권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화마에서 건짐받은 아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히다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위원회 원장)



그림 1

복음 전도자, 사회운동가, 교회 개혁자, 부흥사, 신학자, 이 모든 호칭에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감리교 창설자라 불리는 존 웨슬리(1703-1791)이다. 존은 1703년 영국 랭커셔주에 속한 엠피스 Epworth에서 성공회 사제인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십구 남매 중 열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림1]은 웨슬리가 태어난 생가이다. 꼭대기 다락방을 포함하여 3층으로 이뤄졌다. 지금은 존 웨슬리 박물관으로 운영되는 이곳 ‘옛 목사관 Old Rectory’에서 존은 부모와 많은 형제자매와 더불어 왁자지껄 생활했다. 이곳을 방문하면 어린 시절 존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표현으로 존은 전형적인 ‘목회자 자녀’^{PK}였다.

어린 존이 집에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은 만 여섯 살이 채 되지 않은 1709년 2월 9일에 발생한 화재였다. 한밤중 화재를 발견한 아버지 사무엘은 고함을 지르고 가족들을 깨워 밖으로 대피했으나 위낙 식구가 많아 존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다행히 인간 사다리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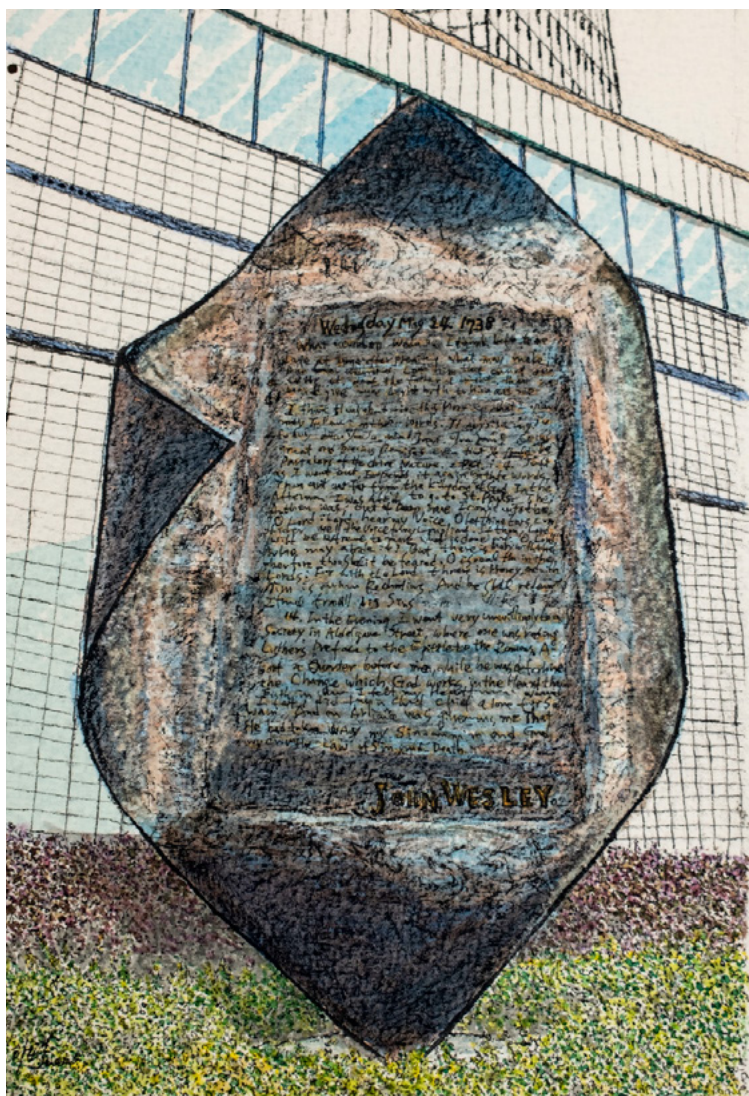


그림 2

들어 겨우 존을 창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그때 수산나는 웨슬리를 보며 “하나님이 장차 이 아 이를 영혼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구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웨슬리는 이후 평생 자 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깥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훗날 그가 폐

병으로 죽음을 직감했을 시기인 1753년 11월 26일 일기에 묘비에 기록할 유언을 남겼다. “여기 존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깥이 같은 그가 나이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하나님이지여, 비오니 이 무익한 중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웨슬리는 결국 화재와 병마에서 살아남아 사도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인물이 되었다.

애플스에는 존의 생가 외에도 아버지 사무엘이 목회했던 세인트 앤드류 교회와 사무엘의 묘지가 있다. 존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후일 아버지 무덤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1889년 완성한 웨슬리 기념 교회와 2003년 웨슬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그의 청동상 등 존 웨슬리와 관련 있는 유적들이 남아 있다.

[그림2]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위치한 존 웨슬리 회심 기념비이다. 런던 박물관 앞에 있어 찾기 어렵지 않다. 존은 런던 차터하우스 스쿨과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공부한 후 1725년 성공회 부제로, 1728년 성공회 사제로 안수를 받았다. 1729년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신성 클럽’^{Holy Club} 지도자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금식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를 방문하고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다 1735년 10월 미국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가던 중,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모라비아 교도들의 확신에 찬 신앙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된 때도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진행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이었다.

회심 기념비에는 웨슬리의 그날 일기가 새겨졌다. “나는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기념비가 불꽃 모양을 한 것도 웨슬리의 고백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회심의 장소가 감리교회가 탄생한 곳이라 할 수 있으리라.

비록 존은 평생 성공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성공회를 개혁하는 감리교회가 이날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여섯 살 화마에서 건짐을 받은 부지깥이가 서른다섯 살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가정에배는 시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코로나 팬데믹의 큰 위기와 어려움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목회의 본질에 대하여 정직하게 마주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마치 치열한 경기 중에 갖는 작전 타임처럼,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여정이 이대로 가면 승리와 소망이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시기보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향과 전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성경에서 찾는 여정 안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부르심과 실천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길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참으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을 향한 성경적 목회 현장입니다. 여기서 ‘오래 되었다’는 것은 가정예배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주무해 오신 성경적 정언 명령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양육받을 수 없는 비대면의 목회 현장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 전수의 현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가정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예배’는 목회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성경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우리 가정은 가족이 모두 모일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자녀와 마주 앉아 식사 한끼 하기가 어렵네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시간 없음’을 꼽습니다. 위에서 말한 말들이 적지 않은 가정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가정 유형이자 가장 높은 비율의 가정 유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4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가정 유형은 1인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과 공간상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고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가정예배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정예배의 중요한 우선적 원리는, ‘가정예배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정예배는 시간이 없기에 못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세워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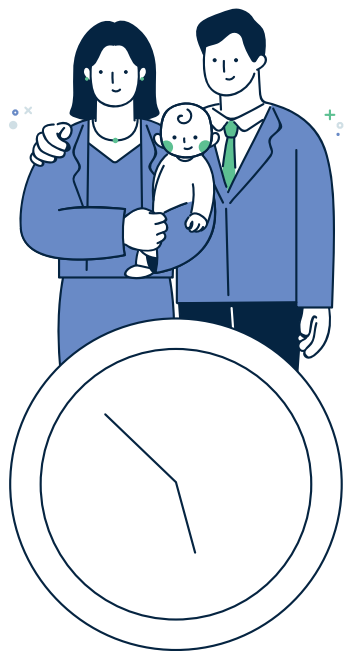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롯의 가정이 소돔 땅으로 방향을 바꾼 시점에 성정은 롯의 가정 안에 이 우선순위가 무너졌음을 보여 줍니다. 성정은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나 가족이 모여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우선순위인 “제단”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예배는 상황의 영역이 아닌 순종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면, 먼저는 모일 수 있는 가족만이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가 일터에 있느라, 자녀가 군대에 있느라, 학원에 있느라 온 가족이 가정에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 문입니다.

저희 집은 저녁 9시 30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설교이든, 강의이든, 회의이든 다양한 이유로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런 날은 가정예배를 멈추기보다 도리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제 아내는 저의 상황을 자녀들에게 알려 주고, 저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에 없는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자리는 아빠의 부재가 아닌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십여 년 전, 미국에서 이민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매주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누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을 자녀와 공유하며, 같은 기도 제목 안에서 가정예배를 지켜내던 부모님들도 보았습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에 가정예배를 기억하고,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이 공유되고 강력히 전수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 가정예배를 향한 우선순위가 선명히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예배를 최선의 응답으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과 가정예배의 많은 문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예배가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은 가정의 수준과 상황만큼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아가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정예배의 자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 중에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감사 중에는 찬양과 헌신을, 일상 중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빛어 가시는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본 자료는 필자가 『목회와신학』에 게재한 글인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적 원안이다”(2022년 1월)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약간의 유익, 육체의 연단 생활 습관 교정과 건강 수명

글 이길연 (집사)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후 4:7-8)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약간의 유익-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83.5세로 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길고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2020년 기준 66.3세로 평균 수명과 17.2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건강 수명이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쉽게 말해서 '건강하게 산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7.2년이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누워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백세 사셨으니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자의 힘보다 생활 습관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생아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수명이 수십 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비록 병이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즉 선천적 유전자보다 후천적 생활 습관이 건강에 더 강력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흔히 건강의 세 기둥으로 불리는 ‘운동’, ‘수면’, ‘식이’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다는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운동’은 중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빠르게 걷기가 있습니다. 조금 땀이 나도록 하루에 30분씩만 걸으면 됩니다. 하루 7,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움직여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단 몇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단 한 발짝이라도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은 하루에 7시간이 적절합니다. 이보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맑은 오전에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과 아데노신이 적절히 분비되어 좋은 수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이’는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는 영양 과잉 시대라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가공식품(치킨 너겟, 소시지, 냉동 감자튀김, 사탕, 시판 쿠키, 탄산음료, 시판 빵,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베이킹 믹스)과 정제 탄수화물(도넛, 과제, 과일주스, 흰 빵)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비정제 탄수화물(잡곡밥, 현미밥, 고구마, 콩, 감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짧은 지면으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 습관 교정(육체의 연단)을 자세하게 알려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 강이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앱이 나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의 연단을 넘어 경전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8월 첫째 주

대학·청년부 여름 국내 선교

대학, 청년부가 지난 7월 충북과 경북, 경남 농촌 지역에서 국내 선교 활동을 펼쳤다. 대학부 국내 선교팀 150여 명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보은, 경북 안동, 경남 산청 지역 4개 교회를 찾았다.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노동으로 지친 몸을 풀어 드리며,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을 나눴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과 나무를 정리하며 농촌의 일손을 돕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마주했다. 청년부는 7월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에트 라보라^{Ora et Labora}를 주제로 경남 의령 지역 3개 교회를 찾았다. 청년 90여 명이 갑을교회, 덕실 소망교회, 용덕면민 교회로 흠어져 축호 전도, 교회벽화 그리기와 보수 사역, 마을 전도를 했다. 청년들은 준비한 선물을 들고 마을회관과 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마을회관과 교회에 초대해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의 향기를 가득 채웠다. 청년들은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배우고 훈련했다며, 지역 농촌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에게 힘을 보탠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대학 청년부원들, 이들의 땀과 수고로 농촌 마을 지역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 임하길 바란다.



8월 셋째 주

2023 청소년 신앙캠프 부르심



소망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미자립 교회 학생 초청 ‘부르심 신앙캠프’가 지난 8월 7일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소망교회는 자체 수련회를 갖지 못하는 전국 미자립교회 학생들을 초청해 매년 여름 신앙캠프를 개최해 왔다. 매년 초등학교 대상 ‘씨앗 캠프’와 청소년 대상 ‘부르심 캠프’가 번갈아 열리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여름캠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전국 48개 교회에서 온 청소년과 교사 350여 명이 소망수양관에 모인 가운데 ‘말씀으로 부르심’ 순서에서 강사들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행복으로 부르심’ 순서에서 학생들은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간 선배들의 특강,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함께 품었다. ‘재능으로 부르심’에서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서 마음껏 재능과 끼를 뽐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수양관을 찾아 학생들을 맞으며 “불확정성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인생을 힘 있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얻은 깨달음과 기쁨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청소년들이 신앙캠프를 통해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소망한다.



2023 | 09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8월 26일(통권 141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소망교회 창립 46주년

2023.10.1

세례식

본당 | 주일 1~5부 예배

2023.10.1

창립 기념 음악 예배

본당 | 오후 7시 30분

2023.9.24